

TIME SCHEDULE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10	개회, 단체 기념사진 촬영	
14:10~14:15	환 영 사	예금보험공사 사장
14:15~15:20	〈주제 발표〉	
	저축은행 전망과 리스크 요인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박사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재무건전성 평가	예금보험공사 조계항 팀장
	저축은행 정리사례를 통한 선제적 부실위험관리	예금보험공사 연구센터 김민혁 박사
	리스크관리 사례 (한화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박재철 부장
	리스크관리 사례 (고려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서창진 본부장
15:20~15:50	휴 식	
15:50~16:20	〈패널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송준혁 교수(사회)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기업과장	
	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	
	NICE신용평가 이혁준 본부장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상무	
16:20~16:30	질의 및 응답	패널 및 발표자
16:30	폐 회	

INDEX

- 저축은행 전망과 리스크요인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박사 (P. 01)
-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재무건전성 평가
예금보험공사 조계황 팀장 (P. 11)
- 저축은행 정리사례를 통한
선제적 부실위험관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김민혁 박사 (P. 15)
- 리스크관리 사례 (한화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박재철 부장 (P. 39)
- 리스크관리 사례 (고려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서창진 본부장 (P. 44)

저축은행 전망과 리스크요인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박사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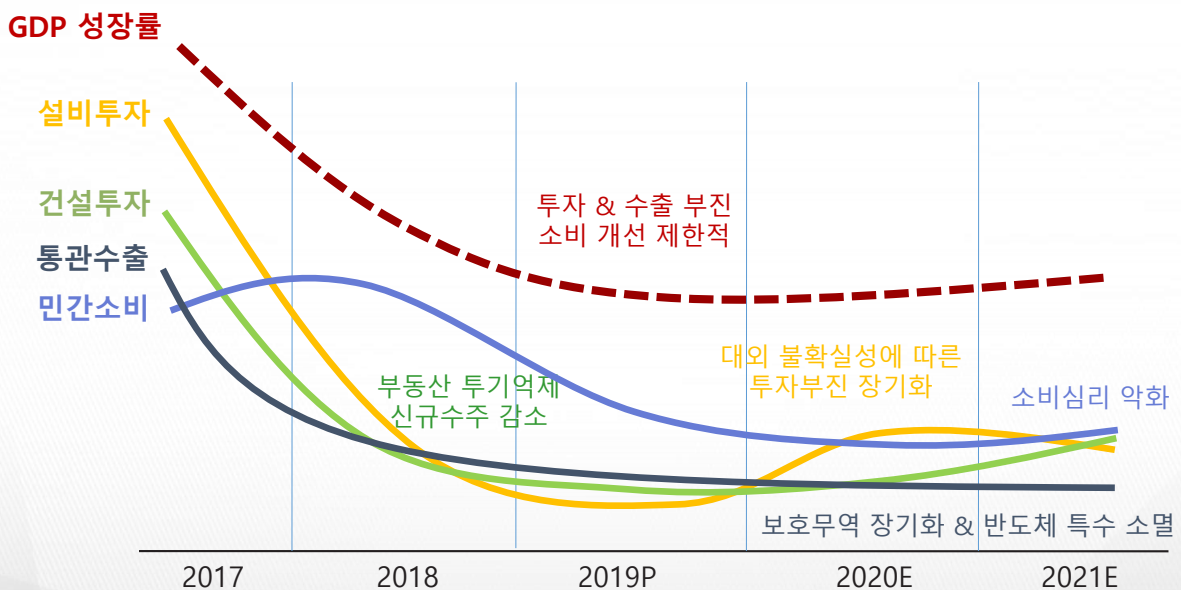
저축은행 전망과 리스크 요인 분석

정 희 수 박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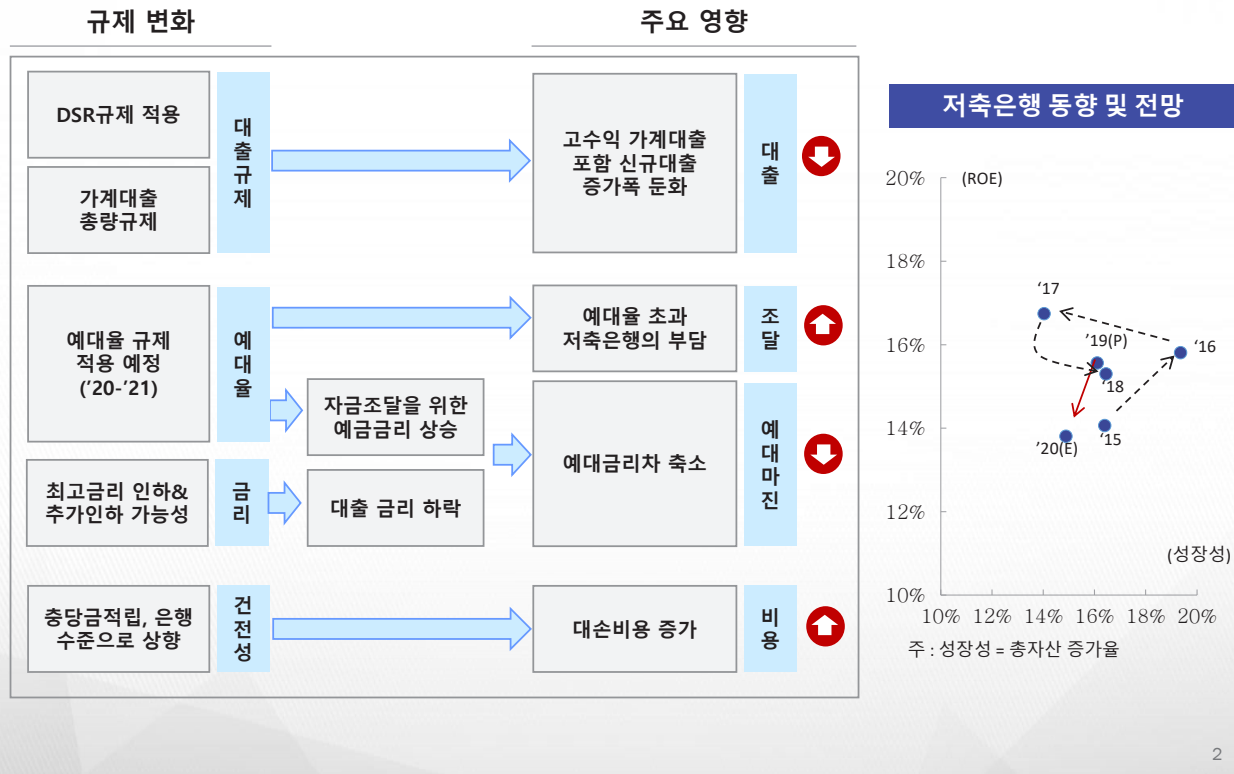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고정투자과 수출이 동반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부진과 구조적 제약으로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성장 기조 지속



경기부진 및 규제 강화로 실적 개선은 어려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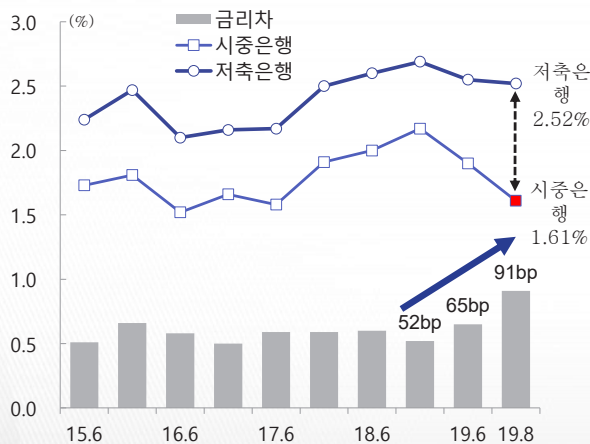


(수신) 예대율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예금 유치

- 경기부진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 확산 → 고금리 예금 수요 증가
-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신뢰도 개선 및 5천만원 예금자 보호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금리차

- 정책서민금융 : 4.7조원('15) → 7.2조원('18)
-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 0.6조원('16) → 2.9조원('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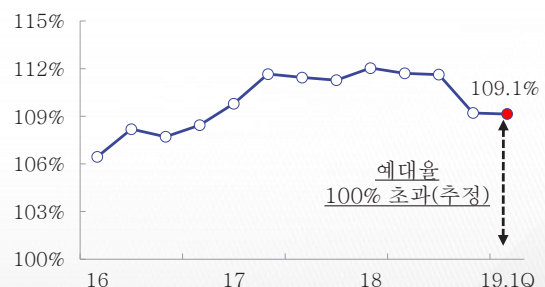


예대율 규제 강화에 따른 자금조달 이슈

- 고금리 대출 규모 및 비중 : 6.4조원 (56.9%)
- 퇴직연금 정기예금 확대(예금금리 2.5% 이상)

【예대율 규제】

- 규제비율 : 110%('20) → 100%('21)
- 대상 :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69개사)
- 산식 : 고금리대출(20%↑) 가중치 130%
- 정책자금대출(사잇돌2, 햇살론) 제외
- 경과조치 : 자기자본 20% 분보 가산 허용('23년까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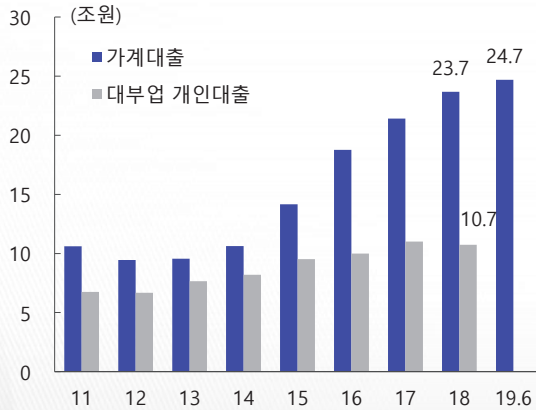


(가계대출) 서민금융의 확대되나, 저신용 계층 Pool 감소

-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가계대출 성장세 지속 ← 대부업 개인대출시장의 위축
- 주 고객층인 7~10등급자 수의 감소 ← 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과 대부업 개인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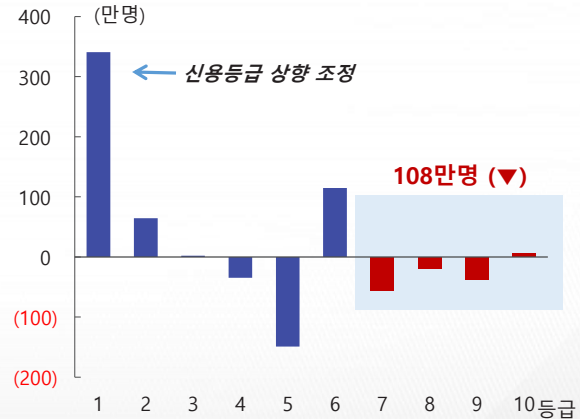
- 정책서민금융 : 4.7조원('15) → 7.2조원('18)
-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 0.6조원('16) → 2.9조원('18)



주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신용등급별 증감 ('15 → '19.6)

- 7~10등급자 수 : 473만명('15) → 365만명('19.6)
(10.7%)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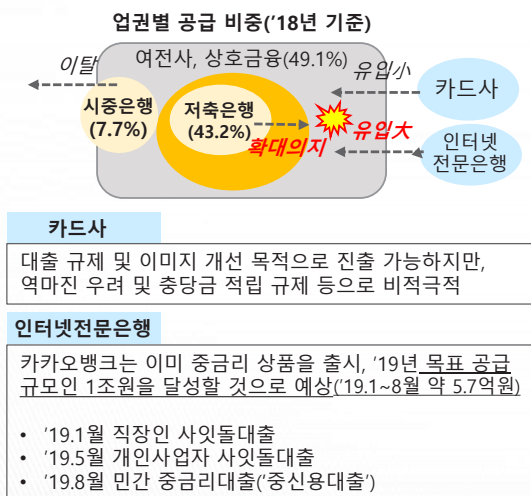


자료 : NICE신용평가

4

중금리대출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타업권의 중금리대출 시장 진출



4~6등급 고객에 대한 경쟁 심화 예상

- 취급 가능한 신용등급-금리 범위 축소 예상('18년 기준)
- 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가 인화된 가운데 4~6등급이면서 우량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타업권/업권내 경쟁 심화



주 :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용대출, 저축은행은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자료 : 각 업권 협회

경쟁 심화

인터넷전문은행 vs. 저축은행

-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 비중을 확대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 예상
- 금리요건 차등화 정책과 리스크 관리 노력이 맞물려 4~6등급 고객에 대한 유치경쟁이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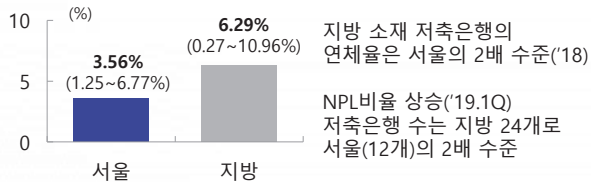
대형 저축은행 vs. 저축은행

5

(건전성)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 확산

-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폐업자 수 등 지방 경기부진이 점차 심화
- 서울-지방 간 체감경기의 양극화 → 연체율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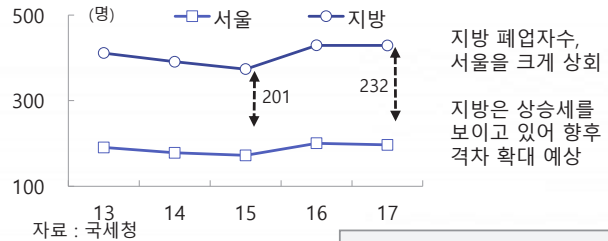
지역간 연체율 비교



주: 비교를 위해 지방 산출 시 경기/인천지역 제외
연체율 50% 이상인 1개 제외
자료: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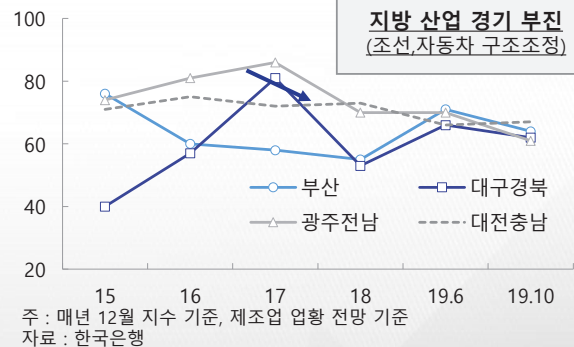
'15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지역 복수 보유 저축은행 발생 ↓ 대형 저축은행 다수의 주된 영업지역이 서울로 결정 (자산 상위 10개사 중 7개가 서울소재) ↓ 지방 저축은행은 주로 중소형으로 지역 밀착형 영업에 치중* *본점소재 지역의 개인+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40~50% 유지	영업구역(총6개)	개수
	서울	23
	경기/인천	19
	부산/울산/경남	12
	대구/경북/강원	11
	광주/전라/제주	7
	대전/충남/충북	7

폐업자 수 및 기업경기 실사지수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

지방 산업 경기 부진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6

총당금 적립 부담 확대

-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하락세 : 10.2%('15) → 7.1%('16) → 5.1%('17, '18) → 5.0%('19.6)
- 총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총당금적립률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단계별 대손충당금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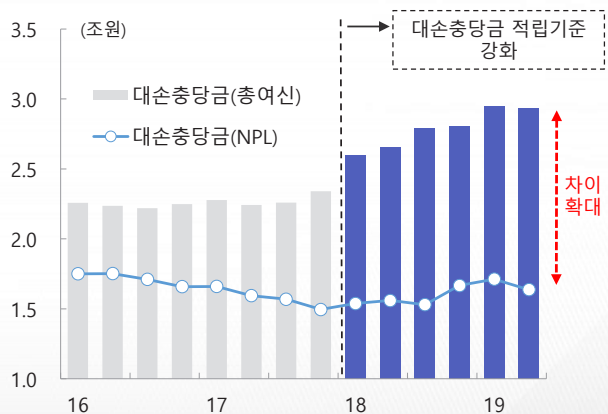
- 정상 및 요주의 채권에 대한 적립 부담 확대
- 가계부문의 적립 부담 확대 ← 가계대출 억제정책

(%)	1단계 ('18)	2단계 ('19)	3단계 ('20)
(시행 전)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가계/기업 모두 동일)			
가계	정상	0.7	0.9
	요주의	5.0	8.0
	회수의문	55	-
기업	정상	0.6	0.7
	요주의	4.0	5.0
	회수의문	50	-
고위험	금리 20%이상, 해당기간 적용 적립률에 50% 가중		

주: '고정'의 경우 20%로 동일, PF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기업 대출 해당
자료: 금융감독원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 총당금 적립 기준 강화 이후 적립 규모 확대
- 총당금 적립률 : 108.2%('16) → 111.4%('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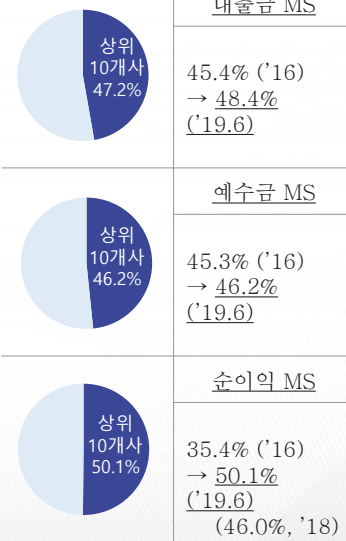
7

(경쟁구도) 대형-중소형사 간 격차 확대

- '15년말 구조조정 이후 3년간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큰 폭 개선

상위10개 저축은행 시장점유율 확대 지속

			2016년		2018년	
			상위10개	중소형	상위10개	중소형
규모	총자산	(조원)	23.1	29.3	31.5	38.0
	지점수	(개)	131	192	124	188
	인원수	(명)	4,625	4,439	4,712	4,469
대출/예수금	대출금	(조원)	19.7	23.7	27.6	31.6
	예수금	(조원)	20.4	24.6	27.6	32.2
수익성	순이익	(억원)	2,981	5,433	5,097	5,988
	ROA	(%)	1.4	2.0	1.8	1.7
	ROE	(%)	15.7	16.6	19.2	13.7
건전성	연체율	(%)	6.4	5.4	4.5	4.1
	NPL비율	(%)	7.4	7.1	5.5	4.7
자본적정성	BIS비율	(%)	11.8	15.5	13.0	15.4



주 : 대형 저축은행은 자산 2조원 이상으로 19.6 기준 2조원 이상 저축은행 기준 9개사
 * 2016년과 2019년의 상위 10개사는 순위변동은 있으나 동일 저축은행이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8

(리스크 요인) 부동산 PF 대출의 확대는 데자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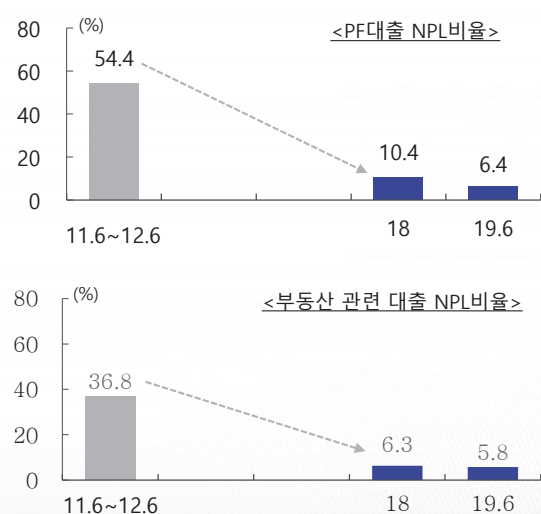
- 과거 부실 원인이었던 부동산 PF대출의 증가로 업권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부동산 PF 대출 규모 및 비중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기사 취합

PF 대출의 NPL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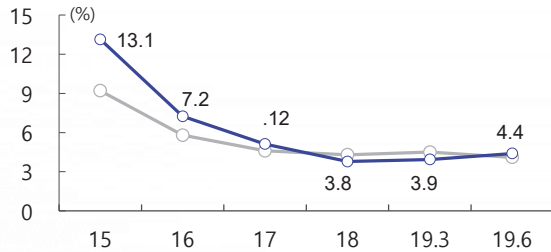
주 : 6개 영업구역별로 기업대출 규모 상위 1~3위('18) 이면서 12년 부터 현재까지 존속한 일부 저축은행만으로 산출. 다만 12년 이후 존속되지 않은 경우 하위 순위로 포함. 자료 부재로 3개사가 포함 되지 않은 영업구역 1개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각 사 경영 공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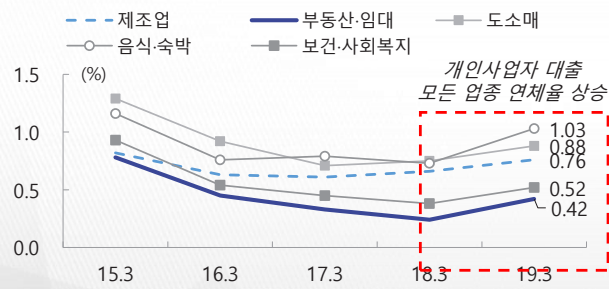
(리스크 요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증대

-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와 함께 연체율 상승세 전환 → 모니터링 강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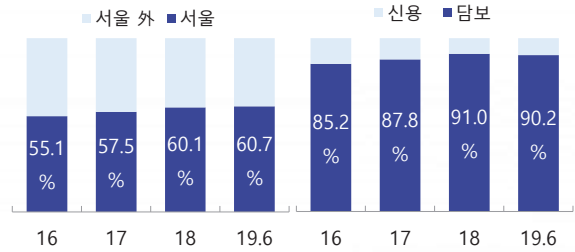


주 : 개인사업자대출은 3월 기준, 그 외 12월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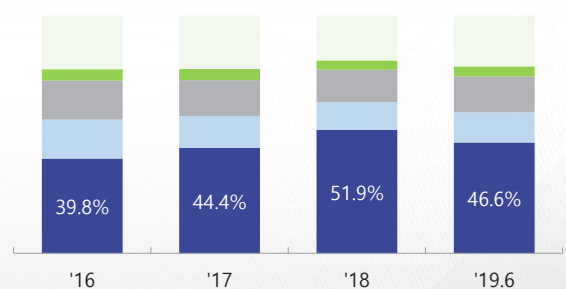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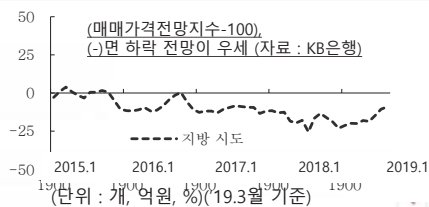


기타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관련업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리스크 요인) 지역별 양극화 현상 심화에 대응



경기/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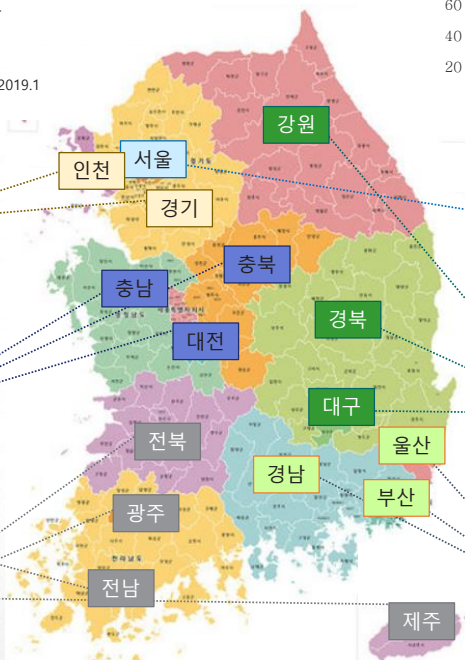
저축은행수	19
BIS 비율	14.1
NPL비율	4.4
순이익	3,127
연체율	4.3

대전/충남/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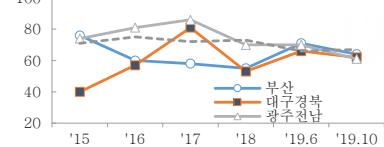
저축은행수	7
BIS 비율	15
NPL 비율	4.5
순이익	805
연체율	5.2

광주/전남/전북/제주

저축은행수	7
BIS 비율	17.4
NPL 비율	8.1
순이익	289
연체율	7.6



기업경기 실사지수 제조업 전망



서울

저축은행수	23
BIS 비율	14.3
NPL 비율	5.1
순이익	5,788
연체율	4.1

대구/경북/강원

저축은행수	11
BIS 비율	12.9
NPL 비율	6.8
순이익	239
연체율	6.1

부산/울산/경남

저축은행수	12
BIS 비율	14.7
NPL 비율	5.2
순이익	839
연체율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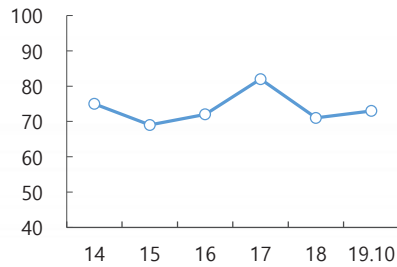
(지역 1) 서울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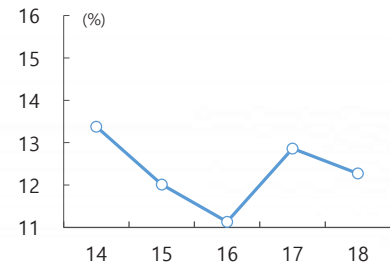
(개, 억원, %)	'18
저축은행 수	23
BIS 비율	14.3
NPL 비율	5.1
당기순이익	5,788
연체율	4.1
총자산	388,382
대출금	334,375
예수금	333,885
자기자본	45,403
ROE	14.7
NIM	5.0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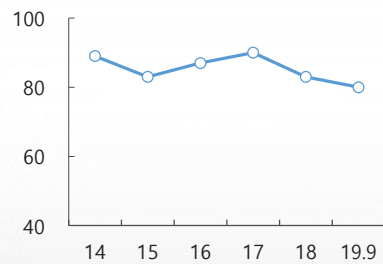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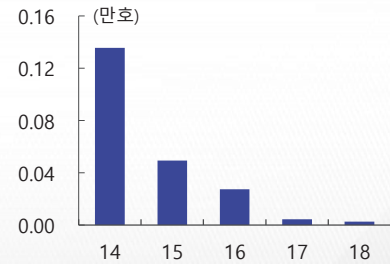
【전체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제조업 가동률 실적 지수(전국)】



【미분양물량 규모】



주 : 1)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 업황 전망 기준
2) 폐업률은 현재 가동사업자 전체 대비 해당연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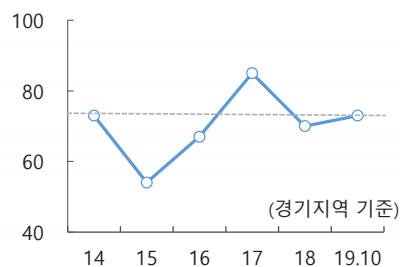
(지역 2) 경기/인천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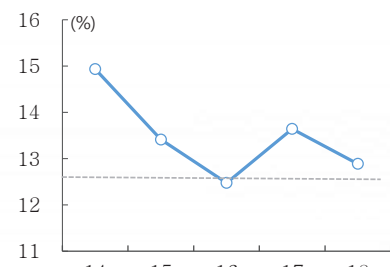
(개, 억원, %)	'18
저축은행 수	19
BIS 비율	14.1
NPL 비율	4.4
당기순이익	3,126
연체율	4.3
총자산	168,017
대출금	144,779
예수금	145,019
자기자본	19,735
ROE	19.0
NIM	3.9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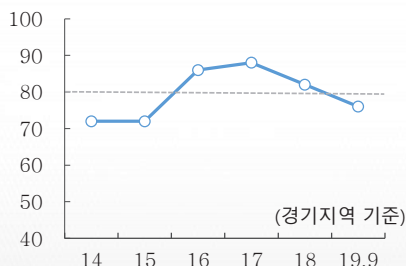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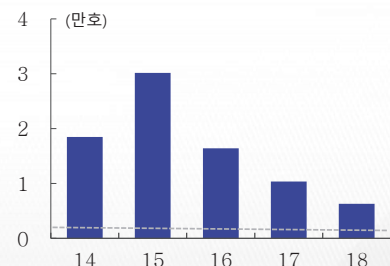
【전체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제조업 가동률 실적 지수】



【미분양물량 규모】



주 : 1)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 업황 전망 기준
2) 폐업률은 현재 가동사업자 전체 대비 해당연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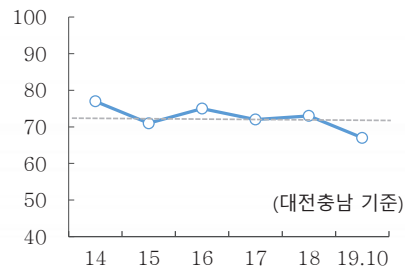
(지역 3) 대전/충남/충북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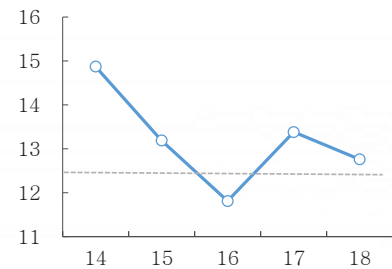
(개, 억원, %)	'18
해당 저축은행수	7
BIS 비율	15.0
NPL 비율	4.5
순이익	807
연체율	5.2
총자산	33,524
대출금	28,055
예수금	28,741
자기자본	3,967
ROE	24.9
NIM	4.4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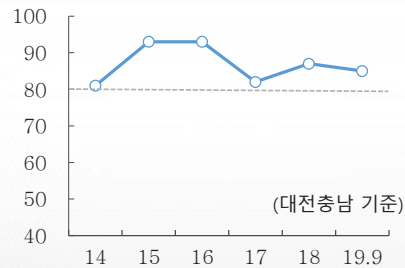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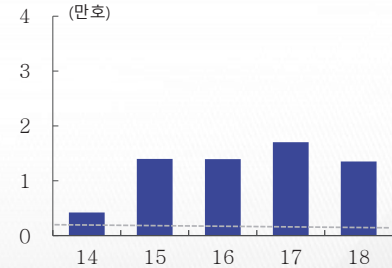
【전체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제조업 가동률 실적 지수】



【미분양물량 규모】



주 : 1)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 업황 전망 기준
2) 폐업률은 현재 가동사업자 전체 대비 해당연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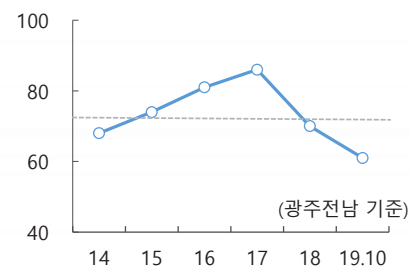
(지역 4) 광주/전남/전북/제주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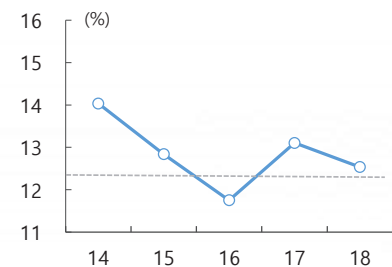
(개, 억원, %)	'18
해당 저축은행수	7
BIS 비율	17.4
NPL 비율	8.1
순이익	290
연체율	7.6
총자산	18,627
대출금	14,907
예수금	15,829
자기자본	2,480
ROE	13.7
NIM	4.4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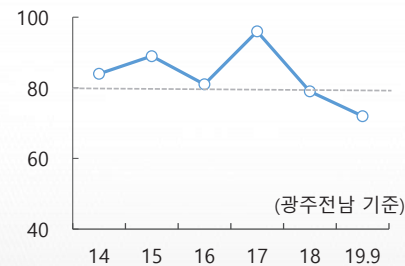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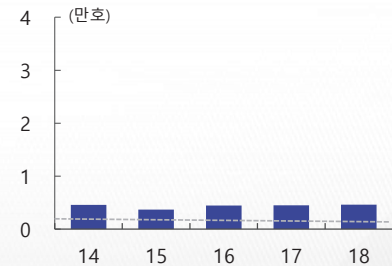
【전체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제조업 가동률 실적 지수】



【미분양물량 규모】



주 : 1)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 업황 전망 기준
2) 폐업률은 현재 가동사업자 전체 대비 해당연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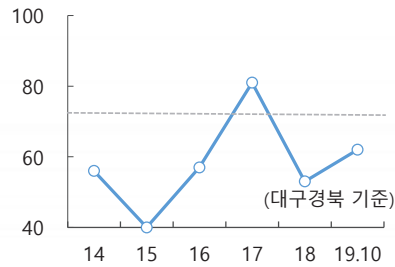
(지역 5) 대구/경북/강원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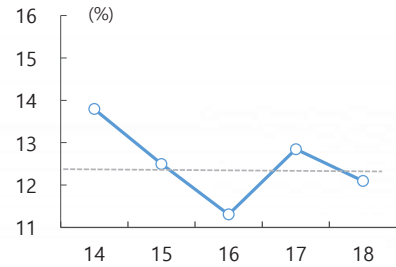
(개, 억원, %)	'18
해당 저축은행수	11
BIS 비율	12.9
NPL 비율	6.8
순이익	237
연체율	6.1
총자산	26,074
대출금	19,451
예수금	22,843
자기자본	2,288
ROE	10.4
NIM	3.5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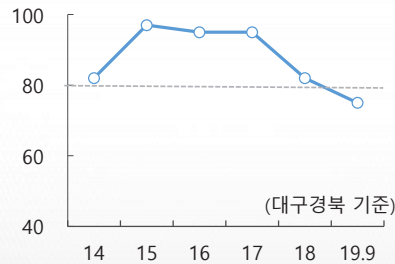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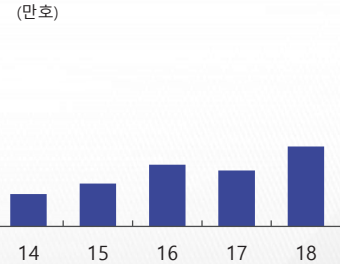
【전체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제조업 가동률 실적 지수】



【미분양물량 규모】



주 : 1)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 업황 전망 기준
2) 폐업률은 현재 가동사업자 전체 대비 해당연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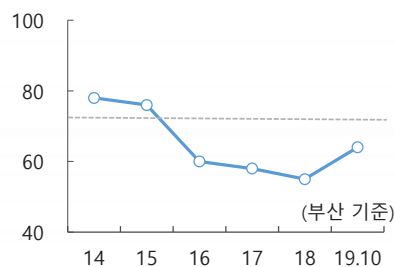
(지역 6) 부산/울산/경남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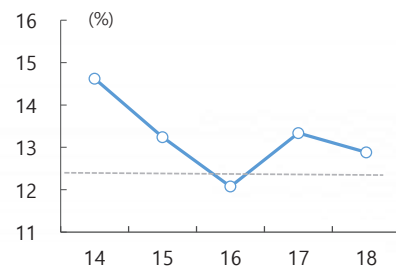
(개, 억원, %)	'18
해당 저축은행수	12
BIS 비율	14.7
NPL 비율	5.2
순이익	835
연체율	3.8
총자산	60,533
대출금	49,895
예수금	51,745
자기자본	8,170
ROE	12.5
NIM	3.4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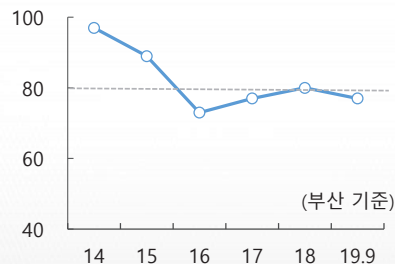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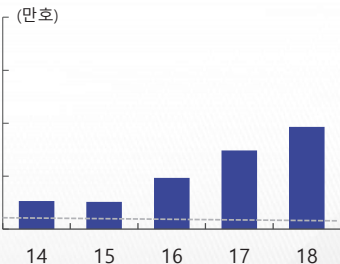
【전체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제조업 가동률 실적 지수】



【미분양물량 규모】



주 : 1)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 업황 전망 기준
2) 폐업률은 현재 가동사업자 전체 대비 해당연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17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재무건전성 평가

예금보험공사 조계황 팀장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재무건전성 평가

조계항 팀장

예금보험공사 리스크평가실

I. 차등보험료율제 개요

❖ 차등보험료율제란?

: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

① 보험료 산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위험의 크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일보험료율 적용시 위험이 낮은 금융회사가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축소

②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유인 제공

: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선행위를 억제

※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연혁

- (1995) 예금자보호법 제정시 차등보험료율제도 관련 조항 마련
(차등보험료율 등 차등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대통령령 개정은 유보)
- (2006)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09)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보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제를 적용키로 함
(단, 업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14년 이후로 함)
- (2013) 세부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 내규 제정 및 시범운영 실시
- (2014) 차등보험료율제(차등평가) 첫 시행
- (2016)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개편모형은 FY'17부터 적용)

II. 저축은행 차등평가모형 현황

❖ 평가대상

- 예보법 제2조 제1항 카목에 따른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 평가구분

- 평가의 기대효과, 보험료 납부규모, 평가가능여부 등에 따라 ①차등모형평가, ②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③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

구분	대상	평가방법	적용요율
①차등모형평가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	등급별 요율
②특정 보험료율 적용 평가	저축은행중앙회, 1천만원 이하 소액보험료 납부회사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③등급외 적용 평가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회사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요율

2

II. 저축은행 차등평가모형 현황

❖ 현행 차등평가모형 평가구조

-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실시 후 1,2,3등급으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평가 (80점)	←	위기대응능력(40점)	←	자본적정성, 유동성 관련 지표
	←	건전성관리능력(20점)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	손실회복능력(20점)	←	수익성 관련 지표
보완평가 (20점)	←	재무위험관리능력(15점)	←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지표
	←	비재무위험관리능력(5점)	←	금융당국의 제재 현황 등

❖ 저축은행 표준요율(0.40%) 대비 할인/할증폭 (차등폭)

- 제도시행 초기 제도안착을 위한 업권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폭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19년 차등폭을 감안한 저축은행 보험료율은 1등급 37.2bp, 3등급 42.8bp임

등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1등급	△5%	△5%	△5%	△7%	△10%
2등급	0%	0%	0%	0%	0%
3등급	+1%	+2.5%	+5%	+7%	+10%

3

II. 저축은행 차등평가모형 현황

❖ 저축은행 차등평가지표 (FY'19)

구분		지표명 (배점)	산식	지표 의의
기본 평가	위기대응 능력 (40점)	BIS기준자기자본비율(20)	$\frac{BIS기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저축은행이 지닌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 평가
		단순자기자본비율(10)	$\frac{단순자기자본}{총자산}$	저축은행 타인자본 의존도 및 부채상환능력 평가
		유동성위험노출비율(10)	$\frac{순인출위험액}{총대출금 - 환인어음}$	대출금 대비 단기에 지급할 위험에 노출된 금액 규모 평가
	건전성 관리능력 (20점)	연체대출비율(10)	$\frac{연체대출금}{총대출금}$	저축은행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건전성 관리능력 등을 평가
		순고정이하여신비율(10)	$\frac{(고정이하분류여신 - 대손충당금)}{(총여신 - 대손충당금)}$	대손비용(충당금)을 고려한 향후 부실발생에 따른 실질 부담 평가
	손실회복 능력 (20점)	총자산순이익률(10)	$\frac{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	전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수익성 결과지표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10)	$\frac{당기순이익}{위험가중자산(평균)}$	저축은행 자산의 위험(리스크)을 감안한 이익 창출능력 평가
보완 평가	재무보완 평가 (15점)	여신혼합지수(7.5) 신규	주1)	대출포트폴리오의 상대적 위험도 평가
		자산성장률(2.5) 신규	$\frac{연말총자산 - 전년말총자산}{전년말총자산}$	과도한 자산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가계대출위험도(5)	주2)	특정자산(가계대출) 집중도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비재무평가 (5점)	금융당국 제재 현황 등(5)		

주1) $(\sum \text{총자산 대비 개별사 업종별 기업대출비중} \times \text{업권평균(직근3년) 연체율}) + (\sum \text{총자산 대비 개별사 담보별 가계대출 비중} \times \text{업권평균(직근3년) 연체율})$

* 단, 고금리 비중이 높은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예대출 감독기준 등을 감안하여 연체율에 120% 가중치 적용 (업권의견 감안)

주2) $(\text{연말가계대출} / \text{전년말가계대출}) \times (\text{연말가계대출} / \text{연말총대출})$

저축은행 정리사례를 통한 선제적 부실위험관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김민혁 박사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저축은행 정리사례를 통한 선제적 부실위험 관리

김 민 혁 박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 본 자료는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연구센터)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목 차>

I. 서 론

II.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

III. 실증분석

· 과거 부실원인을 이용한 '16~'19.6월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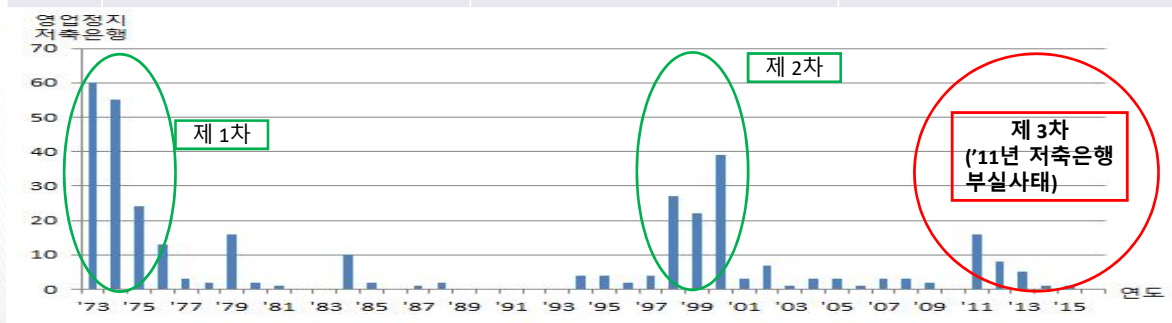
I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I. 서론

-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시기	· 1973~1975년 (’72년 상호 신용금고법 제정 직후)	· 1998~2000년 (’97년 외환 위기 직후)	· 2011~2015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특징	· 私금융업체 양성화하기 위해 先설립인가 후 자격요건 미달· 경영부실 저축은행 정리	· ’97년 외환위기로 여신부실 심화 · 영업부진에 따른 부실 가속화	·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PF대출 부실 · 내부통제 미비 등에 따른 부실 심화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수	16	8	5	1	1	31

I. 서론

-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혼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자산규모에 비해 상당히 컸음
 - ✓ 특히 최근의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bank-run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 발생



4

I. 서론

- 이러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초래**
 - ✓ 제3자 매각 등을 활용한 부실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2018년말 기준 **27.2조원의 자금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지원**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11.4월)

- ✓ '03년 이후 지속적인 저축은행 부실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적자가 누적 ('09년말 기준 약 2.5조원)
- ✓ '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대응을 위해 '11.4월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조달
- ✓ 자금지원: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 출자, 출연, 대출

구분	보험금	개산지급금	출자	출연	KR&C 대출	합계
'18년 말 기준 자금지원액(억원)	36,278	775	3,655	229,873	1,136	271,718

■ '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시 정리방식 유형

가교저축은행	제3자 매각	자체정상화	합계
13	17	1	31

5

I. 서론

- 본고에서는 과거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제적 부실위험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함
 - ✓ 우선, 우리나라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파급을 불러왔던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에 주요 연구에서 열거된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정리하여 제시**
 - ✓ 그리고 나서 상기 부실원인 별로 **최근의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위험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시사점을 도출**

6

I. 서론: <참고 논문 등>

- ❖ 본고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분석한 아래의 연구논문 등을 참고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자 함

제 목	저 자	연 도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방안	국무총리실 연구용역	2012
지배주주 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경서·정찬식(한국증권학회지)	2015
저축은행 부실행태분석 및 부실예고지표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2016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와 부실위험에 관한 연구	김학건·박광우·오승곤(금융안정연구)	2017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	이규복·이수진(금융연구원)	2017
저축은행과 예금자규율	심명화(재무관리연구)	2018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예금자규율에 관한 연구	김민혁(기업경영연구)	2018
여신집중과 저축은행부실에 관한 실증연구	김학건·박광우·오승곤(재무연구)	2019
저축은행의 예금자행태와 부실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김민혁(한국증권학회지)	2019

7

II.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

II. 부실의 주요 원인

- 그간 실무 및 학계 등 여러 부문에서 저축은행의 주요 부실원인에 대해 진단
 - ✓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정리**(부실금융기관결정, 정리방식결정, 자금지원 등), **회수** 및 **부실책임조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요인을 파악
 - ✓ 앞서 제시된 여러 연구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계에서도** 저축은행 부실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
- 본고에서는 은행 등의 자체적인 위험관리능력 향상과 감독기관의 역할 및 시장규율을 강조하고 있는 신BIS협약('04년 확정, 바젤2)*의 관점에서 정리

*바젤2는 Pillar I(최소자기자본규제), Pillar II(감독규율), Pillar III(시장규율)로 구성

 - ✓ ①소유지배구조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문제, ②규제감독규율, ③예금자규율의 세가지 측면에서 “저축은행 부실원인”을 제시

II. 부실의 주요 원인: ①구조적 문제 -소유·지배구조-

- 그간 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소유 제한이 없어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집중화된 소유구조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지배구조의 특성을 가짐
 - ✓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대주주에 의한 경영부실문제가 지속 발생
-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고위험대출에 해당되는 PF대출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추구(risk-taking) 현상이 심화(박경서·정찬식, 2015)
-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가 취약하고, 리스크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이 발생
- 최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가질 경우 및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시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김학건, 박광우, 오승곤, 2017)

10

II. 부실의 주요 원인: ①구조적 문제 -소유·지배구조-

-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대출 부당취급 등의 위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과정 등에서 드러남

‘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주요 불법·부당행위 유형

구분	세부 유형	위반 법규
불법대출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대출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 37조, 제39조
부당대출	● 대출 부당취급(채무상환능력 심사 소홀, 채권보전조치 미흡, 담보 미취득, PF대출 사업성 검토 소홀) ● 담보물 부당해지(대출금 미상환 담보 임의 해지 등)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대출규정, 신용조사규정, 담보 물조사규정)
기타	● 횡령(시재현금, 예금, 대출 취급수수료, 공사비 등) ● 퇴직금, 위로·격려·상여금 부당지급 등	형법 제 355조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

‘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불법·부당대출 비중

(단위: %)

부실저축은행	불법·부당대출 등 비중 ¹⁾							
	불법대출			부당대출			기타	합계
	대주주 대출	한도 초과	소계	PF대출	기타 대출	소계		
30개 평균	8.4	7.0	15.4	2.4	11.0	13.4	1.2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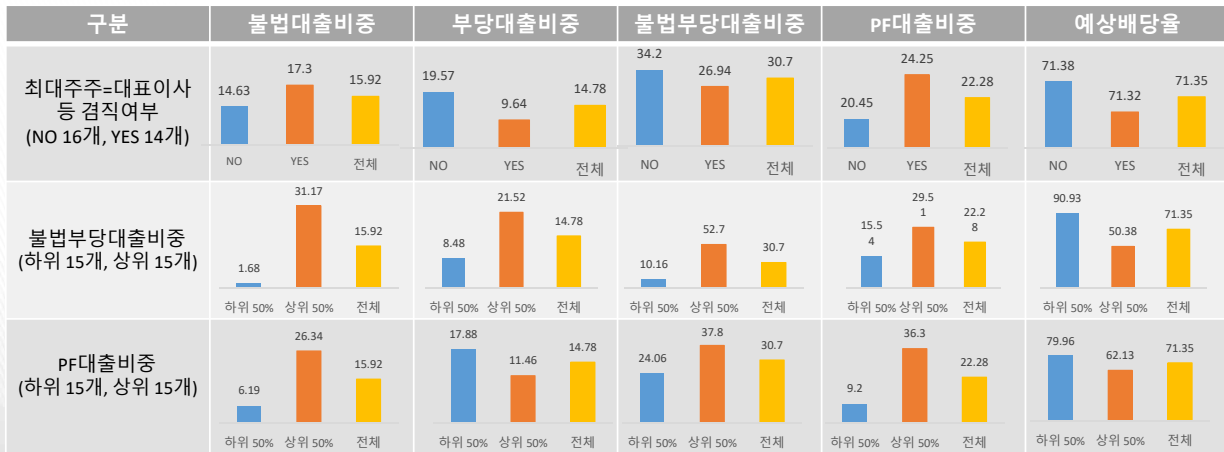
1) 불법·부당대출 순액/총 대출채권액 (예) 한도초과 : 대출액(110억원) - 적법한도(100억원) = 불법대출(10억원)

11

II. 부실의 주요 원인: ①구조적 문제 -소유·지배구조-

-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 1)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저축은행일수록 고위험추구(PF대출비중) 및 불법대출비중이 더 높고, 채권자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더 낮아짐
- 2) 위험추구성향(PF대출비중) 및 불법·부당대출비중이 높을수록 채권자에 대한 예상배당률이 크게 감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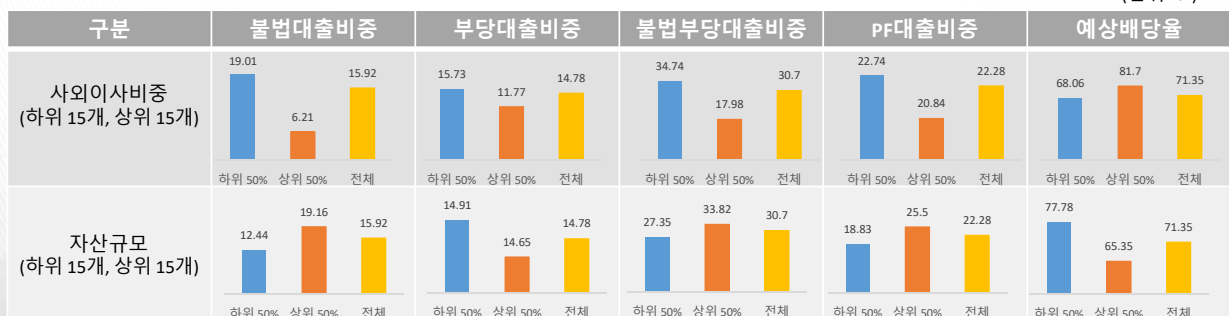


12

II. 부실의 주요 원인: ①구조적 문제 -소유·지배구조-

-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 3) 대형화된 저축은행일수록 고위험추구(PF대출비중) 성향 및 불법부당대출비중이 높고, 채권자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시 대형 저축은행일수록 과도한 위험추구와 전형이 더 심했던 것을 시사
- 4) 다만, 부실저축은행 중에서도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법부당대출비중과 PF대출비중은 더 낮고, 예상배당률은 더 높아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이 일부 작동했던 것으로 해석됨

(단위 : %)



13

II. 부실의 주요 원인: ①구조적 문제-급격한 대출 증가 및 쏠림-

- 규제변화에 따른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저축은행의 구조적 특성상, **외환위기 이후 '98.1월 은행권의 여신금지업종 폐지** 등의 금융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은행 등과의 **경쟁심화** 및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약화**
- ✓ '06.8월 BIS비율 8%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인 소위 '8·8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중복규제폐지 등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의 **위험추구와 맞물려, 자산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고위험 PF대출 등으로의 쏠림 현상 심화**
-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2016)는 부실저축은행 30개와 정상저축은행 30개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1 매칭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한 결과,
- 저축은행의 **공격적인 외형 확대**가 이루어질수록, **여신쏠림 현상**이 심할수록(여신편중도*, PF대출 등)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 제시

*여신편중도(여신편중도) = $\sum_{n=1}^k (loan_n)^2$, 여기서 $loan_n$ 은 총여신(16개 여신업종) 중 n업종에 대한 여신비중(16개 여신 업종)

14

II. 부실의 주요 원인: ②규제감독규율*

*본 장의 slide는 국무총리실 연구용역(2012)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정책 부작용)**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저축은행의 특성***과 맞물려 **무리한 외형확대의 부작용 초래**
*타업권과 동일한 예금보험제도 적용 및 상대적인 고금리 지급에 따른 손쉬운 자금조달(고비용), 고수익 · 고위험 여신운용 등의 고위험추구 성향
- **(느슨한 감독기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가 취약한데 반해, 은행권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 건전성분류기준, 총당금적립기준 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
- **(부실대응 지연)**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 적기정리 지연, 대신 시행된 부실저축은행의 **M&A 유도 정책**이 저축은행의 **대형화, 계열화 확대**를 통해 **부실규모 및 국민부담의 증가 초래**

15

II. 부실의 주요 원인: ③예금자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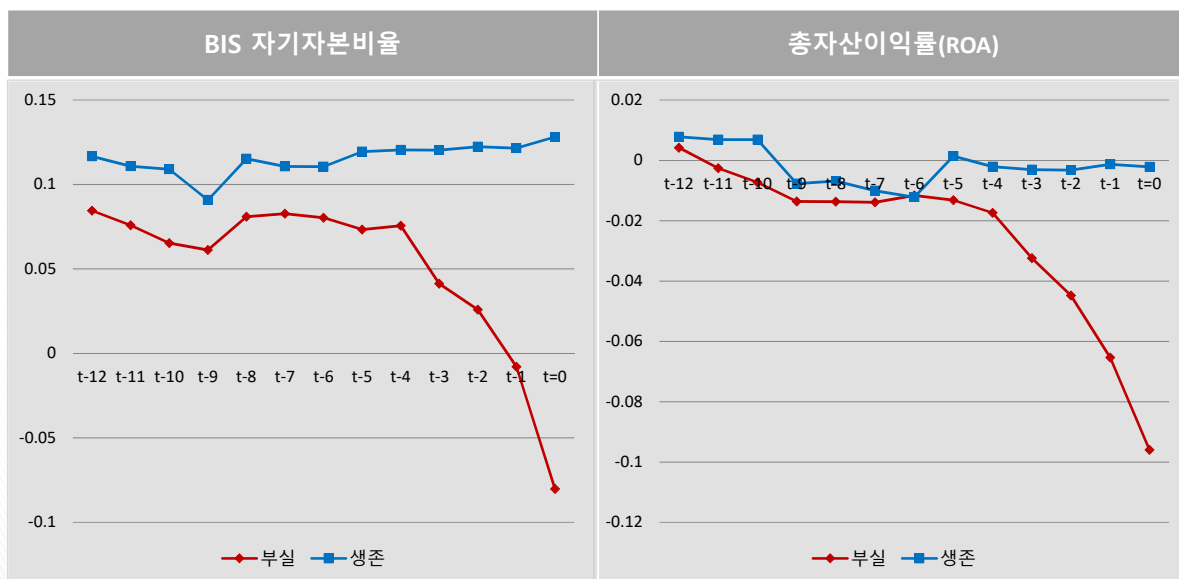
- ✓ 저축은행 부실사태(2011-2012)를 전·후로 한 예금자규율 * 분석에서 **부실사태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예금자규율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음**(김민혁, 2018)

*거래저축은행의 위험수준이 증가하면 예금을 인출하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예금자의 행위

- ✓ **예금자규율이 금융안정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예금자규율이 작동되고, 거래 금융회사는 예금자규율에 반응하여 건전성을 개선하고 위험수준을 낮춰야 함**(Bliss and Flannery, 2002)
- 부실저축은행 30개와 생존저축은행 30개를 자산규모,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기준으로 1:1 매칭하여 분석한 결과(김민혁, 2019),
- ✓ **(예금자규율) 부실저축은행 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확인**
- ✓ **(예금자규율에 대한 반응)** 생존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고 BIS비율을 높여 대응하는 반면, 부실저축은행에서는 BIS비율 조정을 통해서만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함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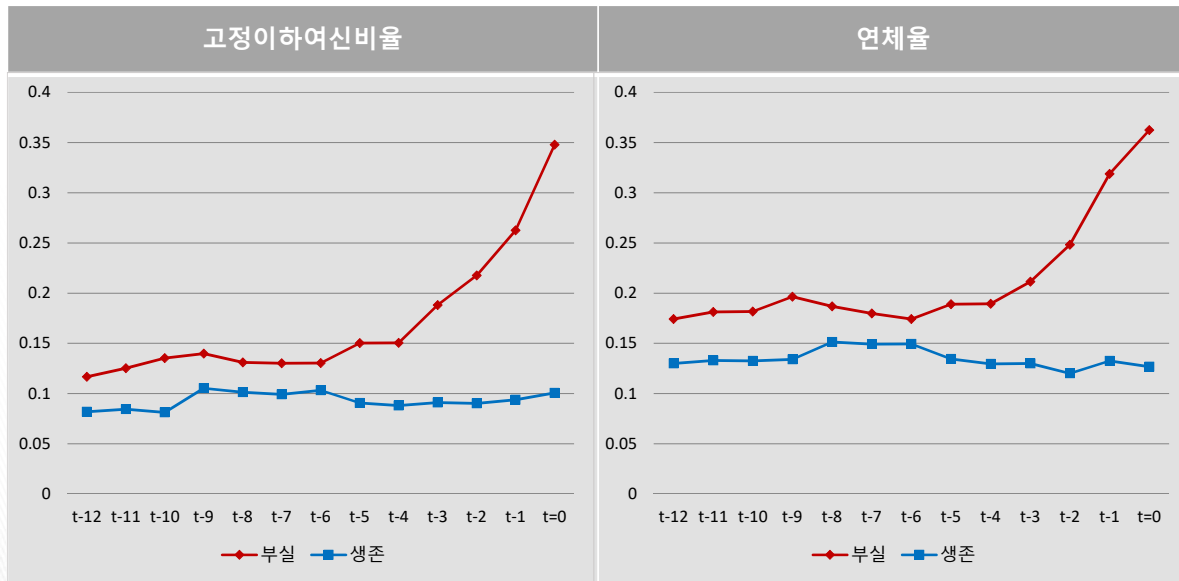
II. 부실의 주요 원인: 부실저축은행군과 생존저축은행군 비교



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2~3개월 전의 분기말로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가 마지막으로 공시되는 부실현재화 시점(t=0분기)부터 최대 3년 전(t-12분기)까지 기간에 대해 재무비율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결과(김민혁, 201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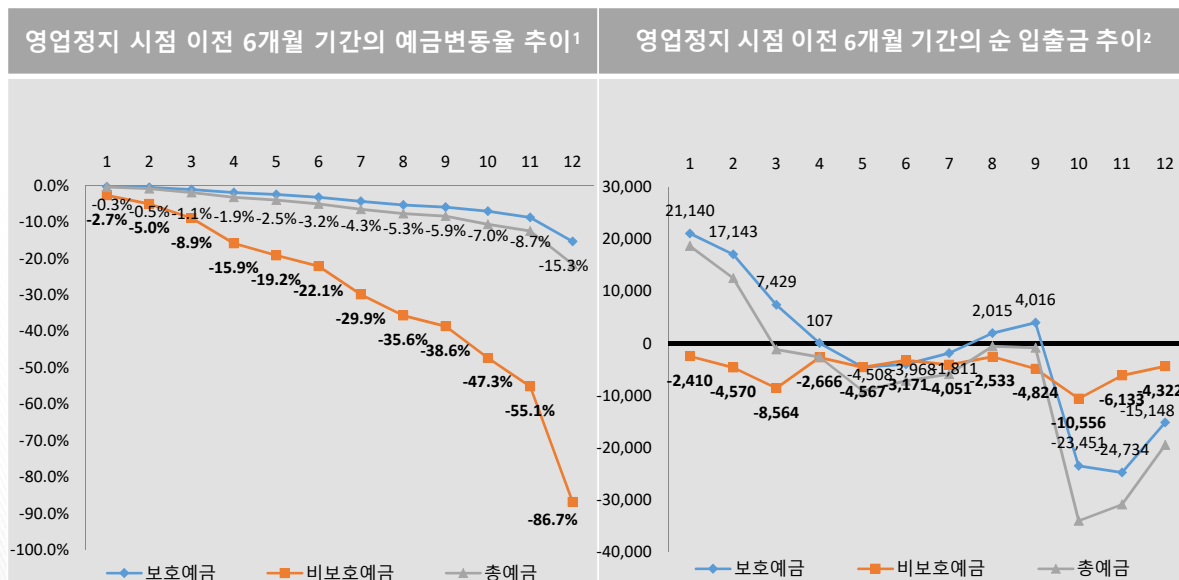
II. 부실의 주요 원인: 부실저축은행군과 생존저축은행군 비교



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2~3개월 전의 분기말로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가 마지막으로 공시되는 부실현재화 시점(t=0분기)부터 최대 3년 전(t-12분기)까지 기간에 대해 재무비율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결과(김민혁, 2019).

18

II. 부실의 주요 원인: 부실저축은행군과 생존저축은행군 비교



주1) 30개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6개월(약 180일)을 1구간(t-169일 ~ t-184일)부터 12구간(t-1일 ~ t-14일)까지의 12개 구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예금의 누적감소율을 계산한 결과(김민혁, 2019).

주2) 2011년 1월 영업정지 된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6개월(약 180일)을 1구간(t-169일 ~ t-184일)부터 12구간(t-1일 ~ t-14일)까지의 12개 구간으로 균등하게 나누고, 매 영업일 동일인 기준 순입출금(=신규 예금액 - 출금액)의 각 구간별 합계액을 보여주는 결과(김민혁, 2019).

19

Ⅲ. 실증분석

- 과거 부실원인을 이용한 '16~'19.6월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분석

Ⅲ. 실증분석

- (연구 표본) '16~'19.6월 기간 동안의 73개 저축은행의 14개 분기 재무데이터 등
* 2015년 12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중 여신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 등 6개사 제외
- (연구 방법) 저축은행 특성별 단변량 분석, 위험추구성향(고위험대출비중), 경영위험(z-score)에 대한 다변량 선형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

구분	변수	측정
주요 종속변수	(위험추구성향) 고위험대출비중	건설업대출비중+부동산PF대출비중+금리 20%이상 개인신용대출비중
	(경영위험) Z-Score	부도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부실위험지표로서, 과거 5분기 평균($ROA + 자기자본비율$) ÷ (과거 5분기 ROA의 표준편차) -Z-Score값이 커질수록 이익 충격 1단위 당 충격흡수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값이 클수록 부실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냄 *EDF등 시장기반지표에 비해 재무제표정보만으로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금융회사의 경영(부실)위험 측정에 많이 활용

Ⅲ. 실증분석: 소유·지배구조 - 고위험 추구 -

- 저축은행의 고위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저축은행의 위험추구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음(박경서·정찬식, 2015)
- 고위험대출비중(건설업대출비중 + PF대출비중 + 금리20%이상 개인신용대출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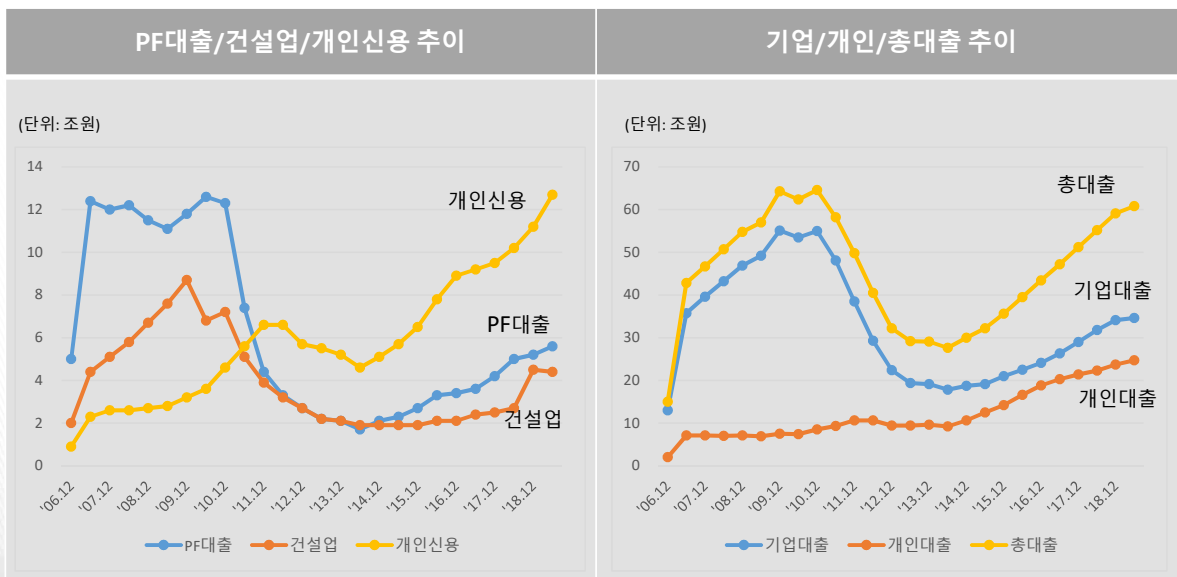
- 1)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위험추구성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
- 2) 또한,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 위험추구성향이 더 높아짐
- 3) 다만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추구성향이 낮아지고 있어, 사외이사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

* 세부적인 추정결과는 <붙임 1> slide를 참조하시길 바람.

22

Ⅲ. 실증분석: 급격한 여신증가 및 여신편중

-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되는 '14년 이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개인대출이 급증하였으며, PF, 건설업 등의 기업대출도 증가



23

Ⅲ. 실증분석: 급격한 여신증가 및 여신편중

-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 측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Z-Score(부도로부터의 거리)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 1) 여신이 급격히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확인
 - 2) 세부 업종별 대출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신용대출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영(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반면,
 - 3) 최근 급증한 PF대출 비중은 아직까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4) 또한 예금보험공사연구용역(2016)에서 제시된 "여신편중도($\sum_{n=1}^k (loan_n)^2$)" 지표는 경영(부실)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 세부적인 추정결과는 <붙임 2> slide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4

Ⅲ. 실증분석: 급격한 여신증가 및 여신편중

- 앞선 결과는 부실사태 이후 PF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 강화(30 → 20%) 등이 이루어져 전반적인 여신편중도가 완화되었고,

여신편중도($\sum_{n=1}^k (loan_n)^2$) 평균

저축은행 부실사태 시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2016)		'16-'19.6월 기간 샘플
부실저축은행(30개)	정상저축은행(30개)	
0.202	0.182	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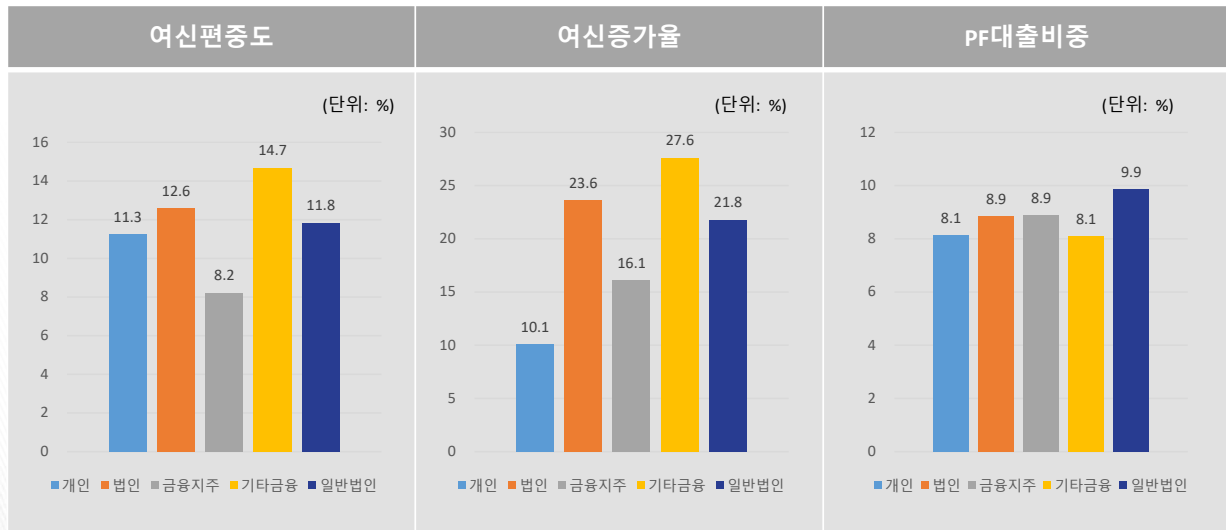
- 저축은행에 대한 소유가 금융지주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춘 대주주로 다변화된 것에 기인

'16-'19.6월 기간의 최대주주 유형

법인 (56.9%)			개인(43.1%)
금융지주 9.6%	기타 금융 27.3%	일반법인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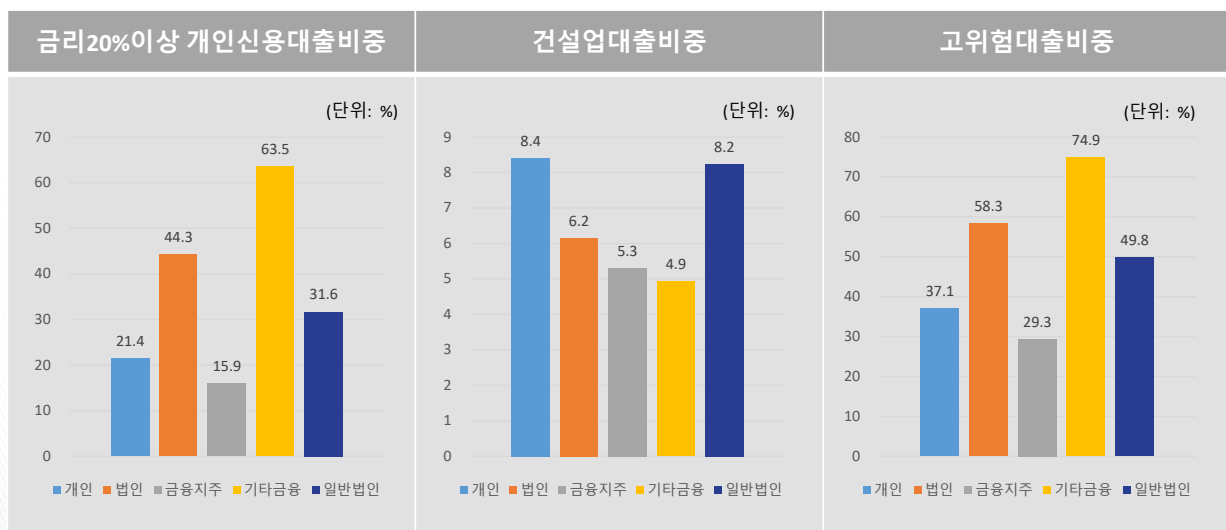
25

Ⅲ. 실증분석: 급격한 여신증가 및 여신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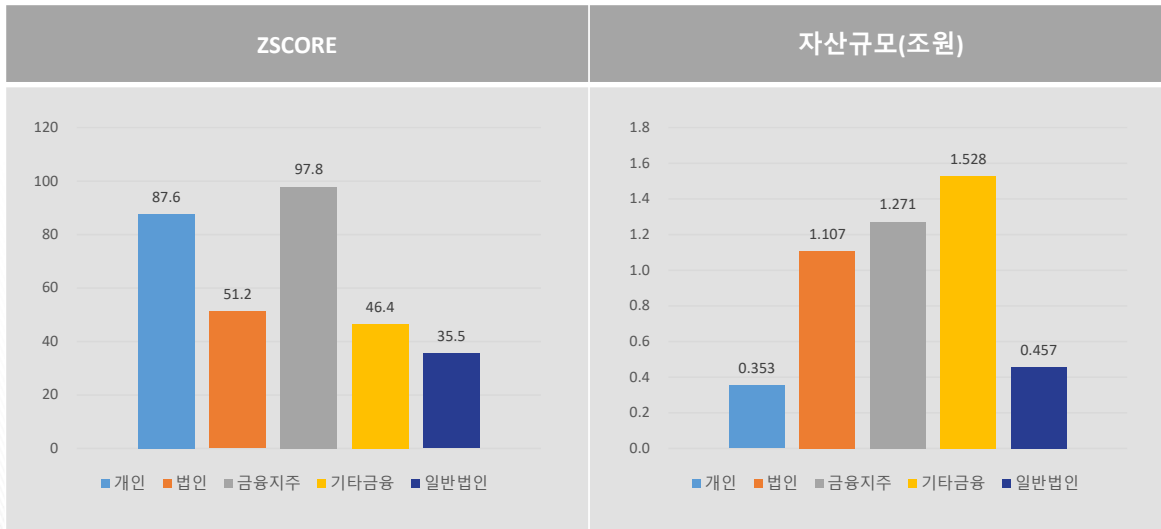
26

Ⅲ. 실증분석: 급격한 여신증가 및 여신편중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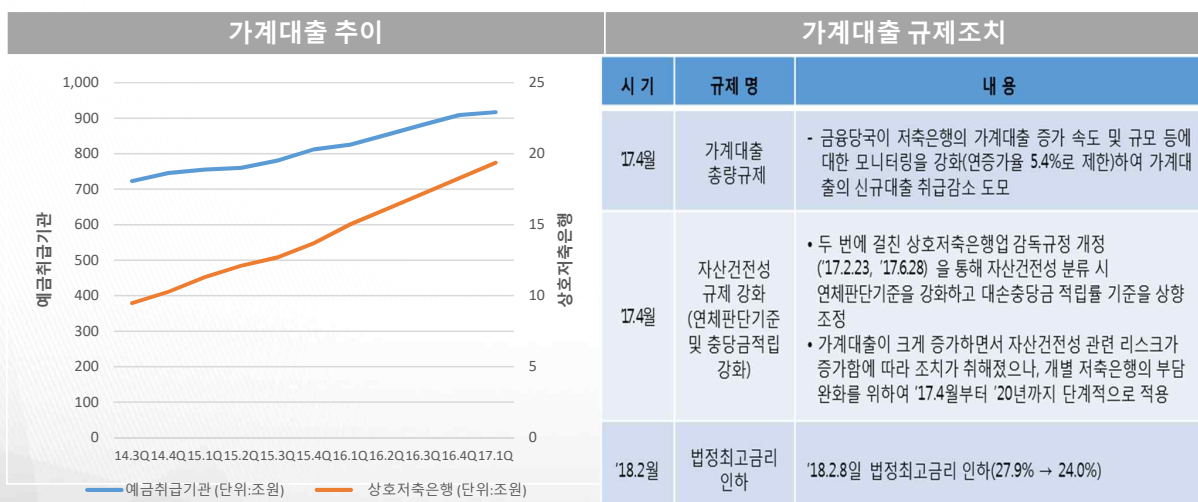
III. 실증분석: 급격한 여신증가 및 여신편중



28

III.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저축은행업권이 거시적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규제감독정책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이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저축은행업권에서도 '14.6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17년 이후 연이어 취해진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이후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



29

Ⅲ.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17년부터 연이어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강화 이후 경영(부실) 위험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 1)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업권에서 부실채권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영(부실) 위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
 - 2) 자산규모가 클수록, 기업대출비중이 **높을수록** 경영(부실) 위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3) 특히 자산규모와 영업 행태(기업/개인대출비중)를 **동시 고려한 분석결과에서는**
 - 기업대출비중이 높고 지역의 서민 및 영세사업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형 저축은행군에서** 경영(부실) 위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규제 전 기간('16.2Q~'17.1Q)에 비해 **유의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인 추정결과는 <붙임 3> slide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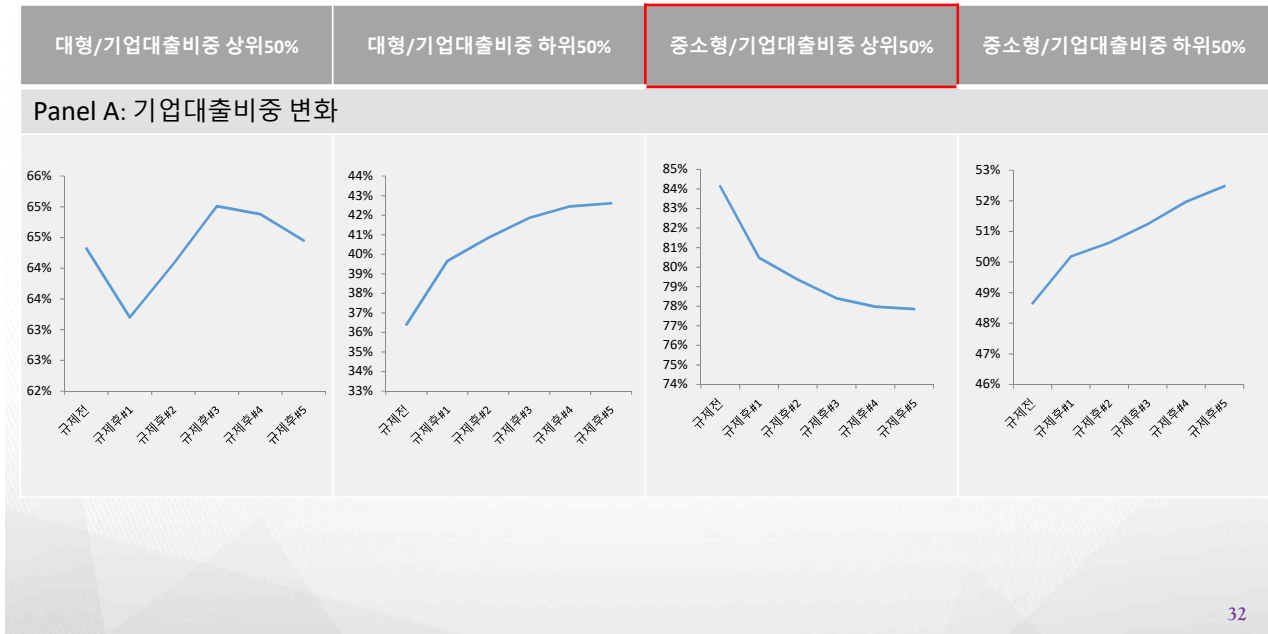
Ⅲ.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4 분위 포트폴리오의 주요 특성 변수 평균 (규제 전 기간, '16.2Q ~ '17.1Q)				
구분	대형/기업대출비중 상위50%	대형/기업대출비중 하위50%	중소형/기업대출 비중 상위50%	중소형/기업대출 비중 하위50%
가중평균 대출금리(%)	7.70	15.37	7.30	9.89
예대금리차(%p)	5.57	12.98	5.17	7.67
요주의대출 비중(%)	31.5	15.1	40.3	19.2

31

Ⅲ.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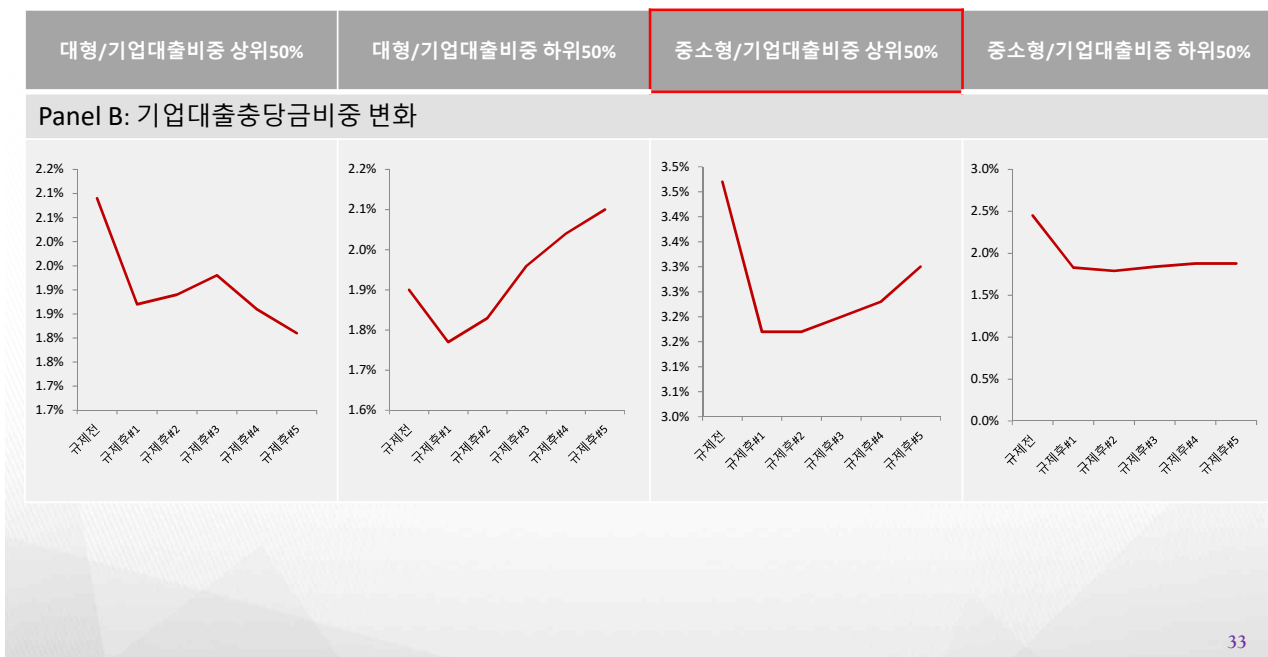
- 중소형/기업대출비중 상위 50% 저축은행군 : 지역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대출비중의 급격한 하락 발생



32

Ⅲ.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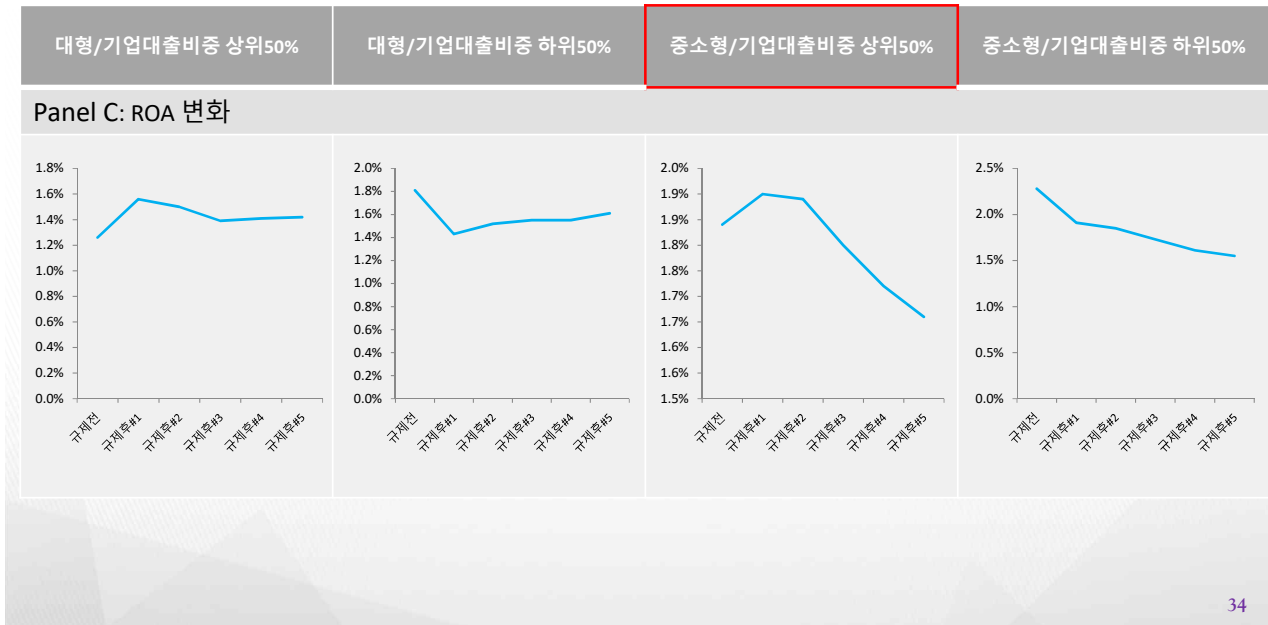
- 중소형/기업대출비중 상위 50% 저축은행군 : 타 저축은행군에 비해 전체 대출 중 기업대출충당금의 비중이 높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33

III.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중소형/기업대출비중 상위 50% 저축은행군 : 수익성 하락이 지속되는 추세



IV. 결론 및 시사점

IV. 결론 및 시사점: 요약

-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은 수익성,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적성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소유구조는 금융지주, 증권사, 대부업체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나,
 - 1)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PF대출 등의 고위험대출 비중(평균 49.2%)은 여전히 높아 위험추구성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산 확대도 계속되고 있음
 - 2) 실증분석 결과,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위험추구성향이 높아지고, 여신의 증가에 따른 경영(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여전히 과거의 주요 부실 원인이 되풀이되어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줌
 - 3) 다만, 사외이사비중이 높을수록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장치의 구축이 중요함을 제시

36

IV. 결론 및 시사점: 시사점

-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의한 과도한 위험추구 및 불법·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유구조 및 내·외부 견제체계의 개선 필요
 - ✓ 사외이사 등에 의한 내부 경영통제시스템,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상장 등 소유분산을 통해 외부자본시장을 통한 감시 강화
 - ✓ 위험추구 및 도덕적해이 억제기제로써 차등보험료율제의 정교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계속적 노력 필요
- 금융부실에 대한 조기인식 및 적기개입 필요
 - ✓ 사전적 감시모형 구축·개선, ON/OFF-Site 검사 강화, 감독당국 간 정보공유 강화
 - ✓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Risk Profile(영업행태 등)을 고려한 규제차등화가 필요하고, 보완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필요
 - ✓ 인구 고령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상대적인 고금리에 대한 예금자 선호와 타 업권과 동일한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여수신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예금자 등에 의한 시장규율 기능의 제고 필요
 - ✓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적기 정리원칙을 명확히 하여 규제금융기대를 불식

37

<붙임 1> 실증분석: 소유·지배구조 - 고위험 추구 -

독립변수 \ 종속변수	고위험대출비중(건설+ 부동산PF+ 금리 20%이상 개인신용대출)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최대주주지분율	0.058	0.114	0.471***	0.084	0.069	0.088
최대주주=법인 더미		-0.244***				
(최대주주=법인) X 최대주주지분율			-0.399***			
최대주주=대표이사				0.116**		
(최대주주=대표이사) X 최대주주지분율					0.332***	
(사외이사 비중) X 최대주주지분율						-0.167*
자산규모	-0.117***	-0.137***	-0.133***	-0.128***	-0.131***	
실질GDP성장률	0.010	0.011	0.011	0.010	0.010	0.015*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R², 상수항은 표기 생략.

38

<붙임 2> 실증분석: 급격한 여신증가 및 여신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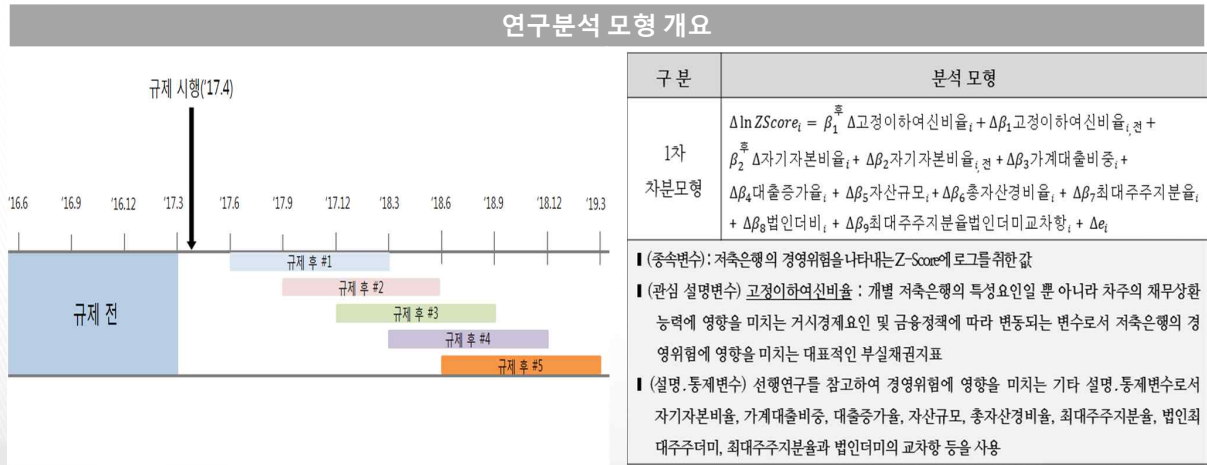
독립변수 \ 종속변수	경영위험(Z-Score, 부도로부터의 거리)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여신증가율(전년동기대비)	-0.516***		-0.515***		-0.515***	
여신편중도		0.400	0.351			
거액여신비중(건당 10억원초과)				0.330	0.203	
건설업대출비중						1.634**
부동산PF대출비중						-0.873
개인신용대출비중						-1.219***
자산규모	1.168***	1.036***	1.164***	1.043***	1.169***	1.003***
실질GDP성장률	0.002	-0.034	0.004	-0.035	0.003	-0.022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R², 상수항은 표기 생략.

39

<붙임 3>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1) 가계대출 규제조치가 연이어 취해지기 시작한 '17.4월을 기준으로 규제 전 기간 1년과 1년간의 규제 후 기간 #1 ~ #5 각각에 대한 2시점(two period) 패널 선형회귀모형 구축
- 2) 규제 후 모형에서 규제 전 모형을 차감하여 구한 1차 차분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연이어 취해진 가계대출 규제 이후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



40

<붙임 3>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규제 전·후의 모든 기간에 걸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커질수록 경영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질수록 경영위험이 작아짐
- ✓ 다만 그 영향력은 규제 직후 커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더욱 커지는 반면, 자기자본비율의 영향력은 감소
- ✓ 가계대출비중의 부정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대출증가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근 들어 유의하게 커지고 있음

독립변수	경영위험(Z-Score, 부도로부터의 거리)					
	규제전 (16.2Q-17.1Q)	규제 후#1 (17.2Q-18.1Q)	규제 후#2 (17.3Q-18.2Q)	규제 후#3 (17.4Q-18.3Q)	규제 후#4 (18.1Q-18.4Q)	규제 후#5 (18.2Q-19.1Q)
고정이하여신비율	-5.086***	-6.356***	-7.454***	-8.535***	-9.376***	-10.889***
자기자본비율	4.657***	6.163***	5.855***	5.267***	4.711***	4.317***
가계대출비중	-0.769***	-0.277	-0.279	-0.357	-0.448	-0.468
대출증가율	-1.399***	-0.320	-0.219	-0.357	-0.944***	-1.365***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R², 상수항은 표기 생략.

41

<붙임 3>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대형(자산 1조원 이상)이 중소형(1조원 미만)에 비해 규제 이후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가계대출비중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고 있음
- 자기자본비율은 중소형에 한하여 유의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확충을 통한 경영위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

독립변수	경영위험(Z-Score, 부도로부터의 거리)					
	규제전 (16.2Q-17.1Q)	규제후#1 (17.2Q-18.1Q)	규제후#2 (17.3Q-18.2Q)	규제후#3 (17.4Q-18.3Q)	규제후#4 (18.1Q-18.4Q)	규제후#5 (18.2Q-19.1Q)
Panel A: 대형						
고정이하여신비율	-2.104	1.071	-2.653	-13.745**	-21.993***	-27.772***
자기자본비율	5.560**	9.873***	8.052**	4.208	2.399	1.707
가계대출비중	-2.312**	-3.007**	-3.026***	-3.653***	-3.888***	-3.751***
대출증가율	-1.531***	1.104	0.462	-0.447	-0.716	-1.155
Panel B: 중소형						
고정이하여신비율	-5.706***	-5.309***	-5.796***	-6.220***	-7.098***	-8.875***
자기자본비율	4.099***	5.154***	4.830***	4.427***	3.879***	3.285***
가계대출비중	-0.619***	-0.012	0.002	-0.001	-0.097	-0.119
대출증가율	-1.259***	-0.529*	-0.409	-0.498	-1.026**	-1.411***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R², 상수항은 표기 생략.

42

<붙임 3>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자산구성 측면에서 기업대출비중이 높을수록 규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경영위험에 미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출증가율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
- ✓ 반면 개인대출비중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가계대출비중의 부정적 영향력은 규제 직후 커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독립변수	경영위험(Z-Score, 부도로부터의 거리)					
	규제전 (16.2Q-17.1Q)	규제후#1 (17.2Q-18.1Q)	규제후#2 (17.3Q-18.2Q)	규제후#3 (17.4Q-18.3Q)	규제후#4 (18.1Q-18.4Q)	규제후#5 (18.2Q-19.1Q)
Panel A: 기업대출비중 상위 50%						
고정이하여신비율	-5.657***	-3.122	-4.278*	-6.054**	-7.924***	-10.081***
자기자본비율	3.720**	-1.154	-1.763	-1.708	-0.727	-0.703
가계대출비중	-2.341***	-0.278	-0.140	0.189	-0.014	-0.483
대출증가율	-0.990***	-0.988**	-1.103**	-1.901***	-2.400***	-2.820***
Panel B: 기업대출비중 하위 50%						
고정이하여신비율	-6.639***	-8.414***	-8.417***	-7.127***	-6.242***	-6.567***
자기자본비율	4.865***	7.787***	7.076***	5.874***	4.252***	3.640***
가계대출비중	-1.022**	-2.049***	-2.096***	-2.002***	-1.826***	-1.360**
대출증가율	-1.764***	-0.411	-0.213	-0.038	-0.407	-0.858**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R², 상수항은 표기 생략.

43

<붙임 3>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자산규모와 영업행태(기업대출비중)을 동시에 고려한 4 분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규제전과 규제시행 직후인 기간 #1, 규제효과가 충분히 누적되었으리라 판단되는 기간 #5를 각각 매치하여 1차 차분모형 분석, 이를 통해 경영위험에 미치는 요인의 변화 파악
 - (규제 직후)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부정적 영향은 기업대출비중이 높을수록 규제 전 기간에 비해 감소(약 5.0%)하고 개인대출비중이 높을수록 증가(약 6.5%)
 - (규제후 기간 #5) 전체 샘플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부정적 영향이 증가(약 4.4%)
- ✓ 4 분위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기업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부정적 영향이 규제 전 기간에 비해 약 9.0% 커진 것으로 나타남

독립변수	경영위험(Z-Score, 부도로부터의 거리)				
	전체	대형/기업대출 비중 상위50%	대형/기업대출 비중 하위50%	중소형/기업대출 비중 상위50%	중소형/기업대출 비중 하위50%
Panel A: 규제후 기간#1 (17.2Q-18.1Q)					
$\Delta\beta_1$ 고정이하여신비율 _{i, 전}	-0.232	-18.888	-32.258	5.041*	-6.518**
$\Delta\beta_2$ 자기자본비율 _{i, 전}	1.314	-21.328**	1.598	-6.864***	7.029***
Panel B: 규제후 기간#5 (18.2Q-19.1Q)					
$\Delta\beta_1$ 고정이하여신비율 _{i, 전}	-4.441**	-99.290	2.139	-9.013***	2.494
$\Delta\beta_2$ 자기자본비율 _{i, 전}	0.828	-9.911	8.486	-5.941***	1.201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R², 상수항은 표기 생략.

44

<붙임 3> 실증분석: 최근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

- 기업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는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응이 취약한 점도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출취급 시부터 “요주의”로 분류되는 기업여신* 위주의 영업행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기업여신은 연체기간에 따라 건전성이 분류되기 보다는 차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실징후에 해당하는 차주의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감독규정 별표 7)
- ** 2017년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기업대출 요주의 비중은 38.1%인데 반해, 개인대출의 요주의 비중은 4.2%에 불과함
- ✓ 요주의 대출비중이 40.3%로 타 저축은행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17.4월부터 시행된 대손충당금적립률 상향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커졌던 것으로 판단됨
- *요주의 여신의 경우 규제 전 2%에서 2020년까지 7%의 충당금 적립률로 단계적 상향조치
- ✓ 다만, 상대적으로 대출금리(7.30%) 및 예대금리차(5.17%p)가 가장 낮은 이들 저축은행군의 경영위험 증가가 해당 지역 서민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됨

4 분위 포트폴리오의 주요 특성 변수 평균 (규제 전 기간, '16.2Q ~ '17.1Q)				
구분	대형/기업대출비중 상위50%	대형/기업대출비중 하위50%	중소형/기업대출비중 상위50%	중소형/기업대출비중 하위50%
가중평균 대출금리(%)	7.70	15.37	7.30	9.89
예대금리차(%p)	5.57	12.98	5.17	7.67
요주의대출 비중(%)	31.5	15.1	40.3	19.2

45

리스크관리 사례 (한화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박재철 부장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리스크관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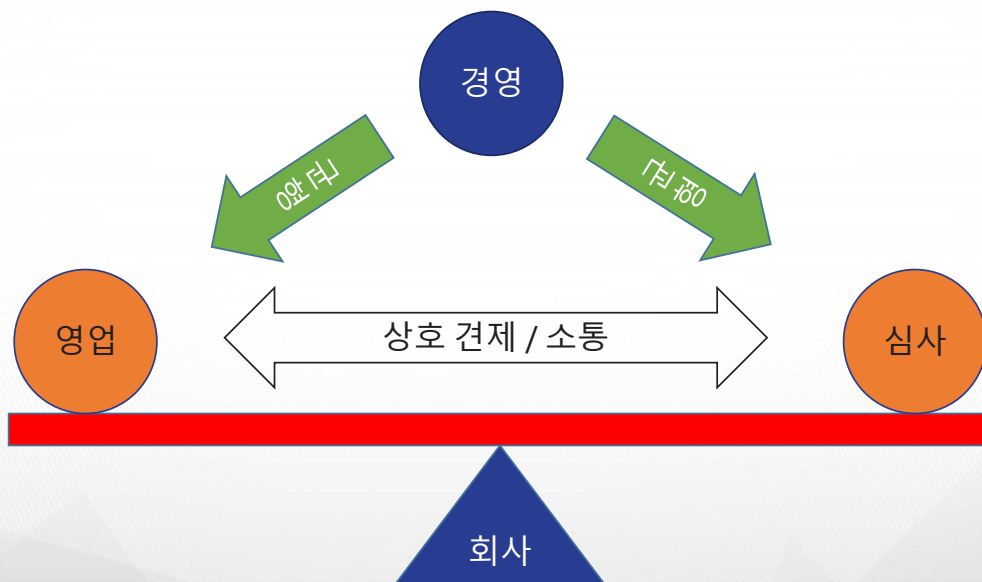
박 재 철 영업부장
한화저축은행



리스크관리 (기업여신)

상호견제와 균형

- 리스크관리의 시작은 상호견제와 균형에서 시작한다
-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는 항상 소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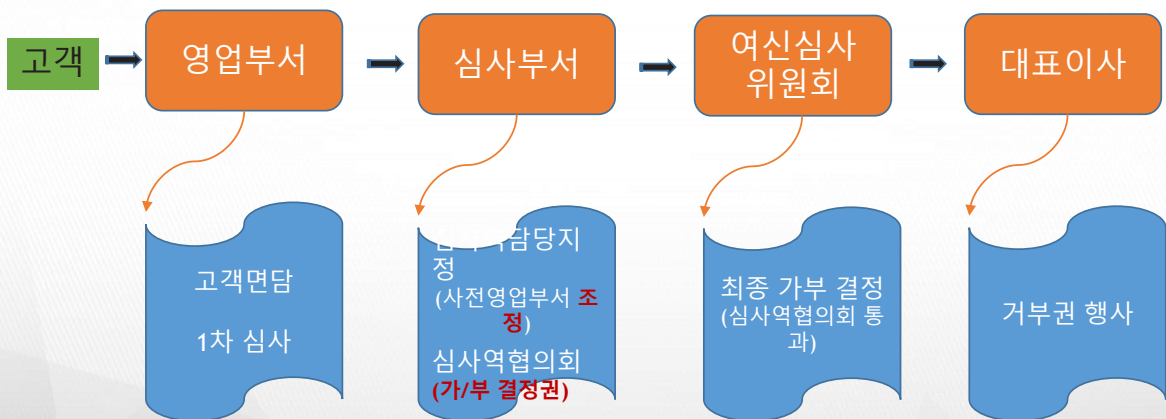


리스크관리 (기업여신)

기본에 충실 하자

- 여신관련 리스크관리 법령 및 규정은 지금도 많다
-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준수하고 활용할 것인가?
- 당사는 법령 및 규정안에서 프로세스를 작동한다

기업여신 승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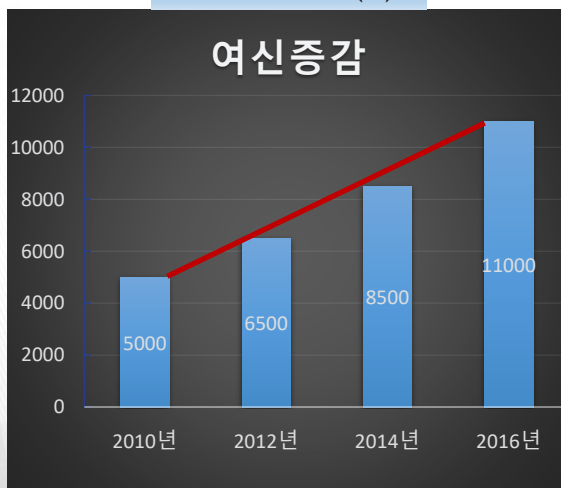
2

리스크관리 (기업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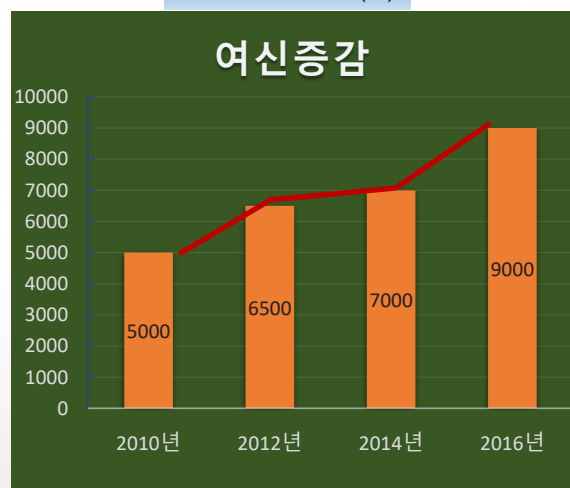
단계별 자산 증가

- 부실은 욕심에서 시작된다
- 기업여신 리스크는 여신을 상환 했을때 비로서 종료 된다
- 계단형 성장을 추구한다 (**A보다 B, 단계별 리스크 관리**)

연 15% 성장(A)



단계별 성장(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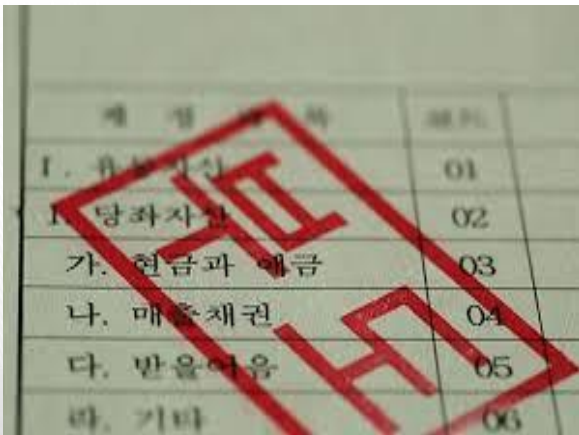
3

리스크관리 (기업여신)

부실사례 I

- **사모사채 인수 후 부도**

- 여신취급부서가 기업여신부서가 아닌 경영부서에서 취급
- 규정개정 ⇨ 규정상 취급불가 해소
- 경영진의 간섭에 의한 심사부서 공정성 상실



- 영업부서 의견 무시
- 1차 심사부서 부정적 의견
- 경영부서에서 영업부서 및 심사부서에 지속적 심의 요청
- 최근 1차부도 사실 무시 → **S전자 1차 납품업체 이유**
- 취급 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 미납
- 전액 부실 발생

4

리스크관리 (기업여신)

부실사례 Ⅱ

- **동산담보 대출 사기**

- 초기 높은 수익률로 영업이익 기여
- 3개년 동안 부실 징후 미 발견
- 높은 수익률에 지속적인 자산증가 ⇒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관심 ⇒ **사기 발생**



- 담보물 과대평가 대출
- 채무자와 동산담보 창고업자 통정
- 중복담보 대출
- 리스크관리 가능 범위내에서 여신 취급 필요
- 과도한 대출취급시 리스크관리 소홀은 필수적 수반

5

리스크관리 (기업여신)

결론

- 법령 및 규정에 충실하자
 - ↳ 지금도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은 충분하다
 - ↳ 얼마나 잘 지키며 잘 운용하는가에 따라 리스크는 좌우 된다
- 영업과 심사는 상호견제 및 소통은 필수
- 경영진의 부서간 균형적인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



6

리스크관리 사례 (고려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서창진 본부장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리스크관리 사례

서 창 진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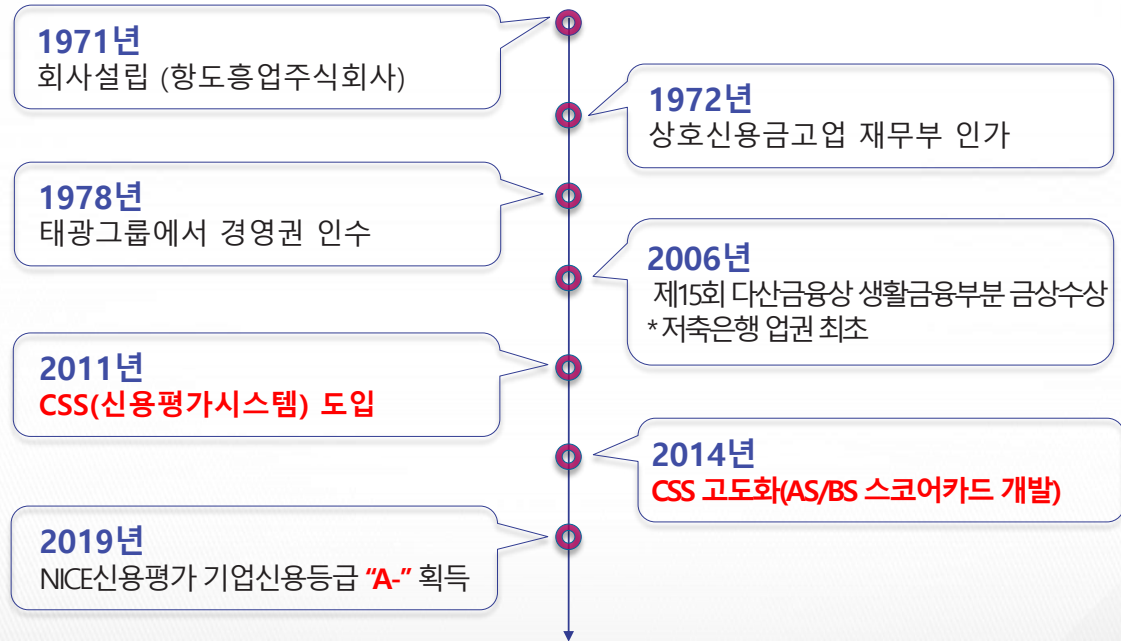
고려저축은행



목 차

- 1 회사소개
- 2 자산 Portfolio 변화
- 3 CSS
- 4 CSS모형 고도화 현황
- 5 신용대출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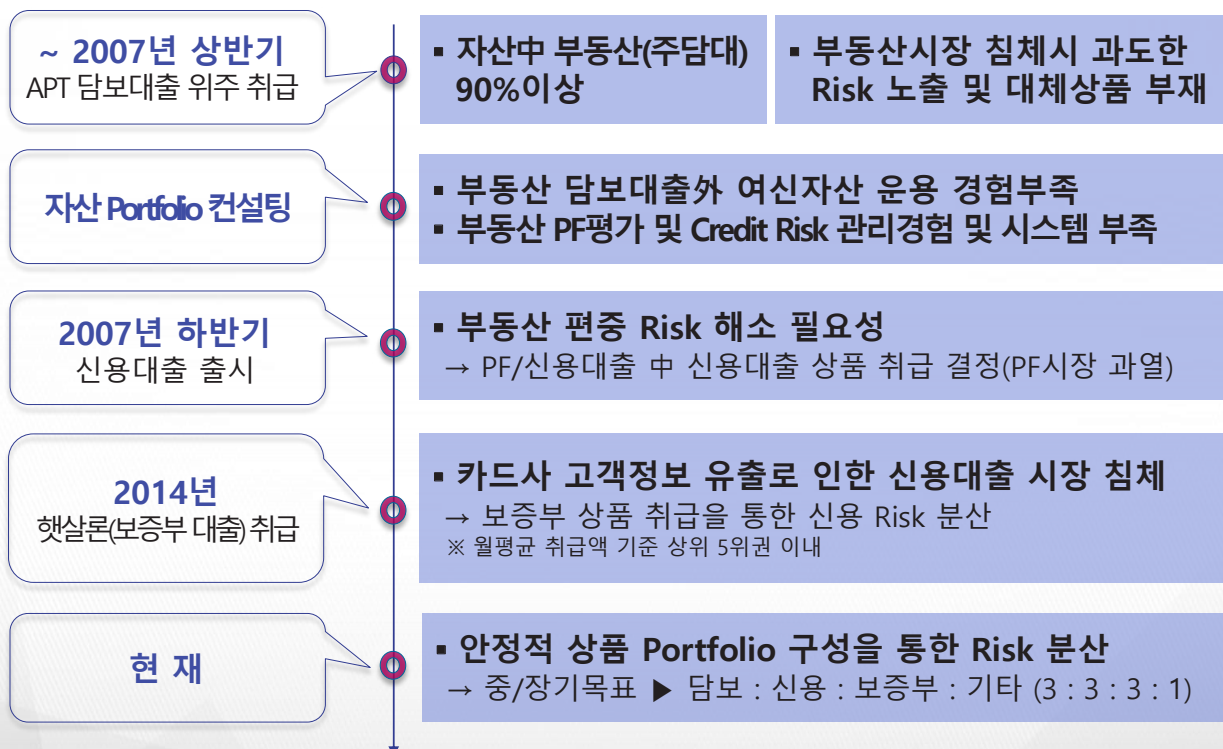
1. 회사소개



"2001년부터 18년 연속 흑자경영"

2

2. 자산 Portfolio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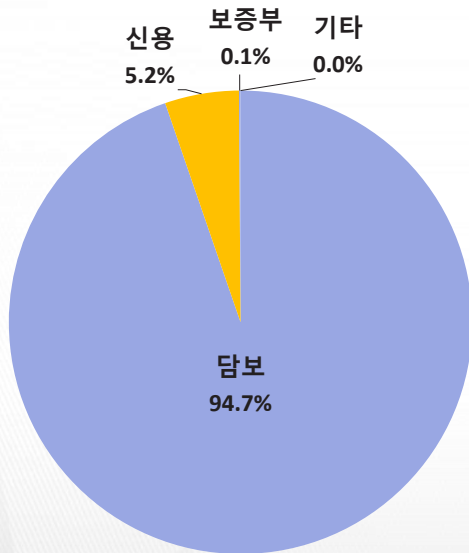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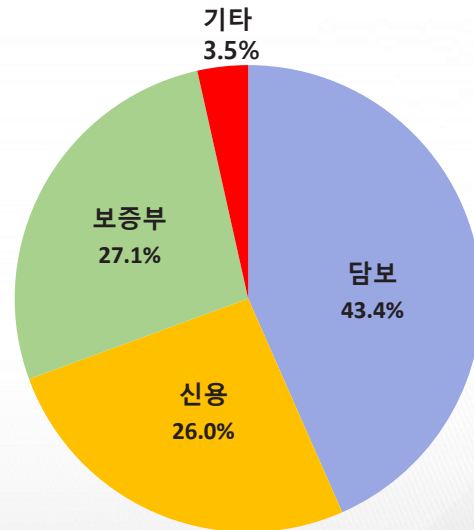
2. 자산 Portfolio 변화

■ 여신자산 구성

<2007.06월>



<2019.09월>



4

3. CSS

■ CSS(Credit Scor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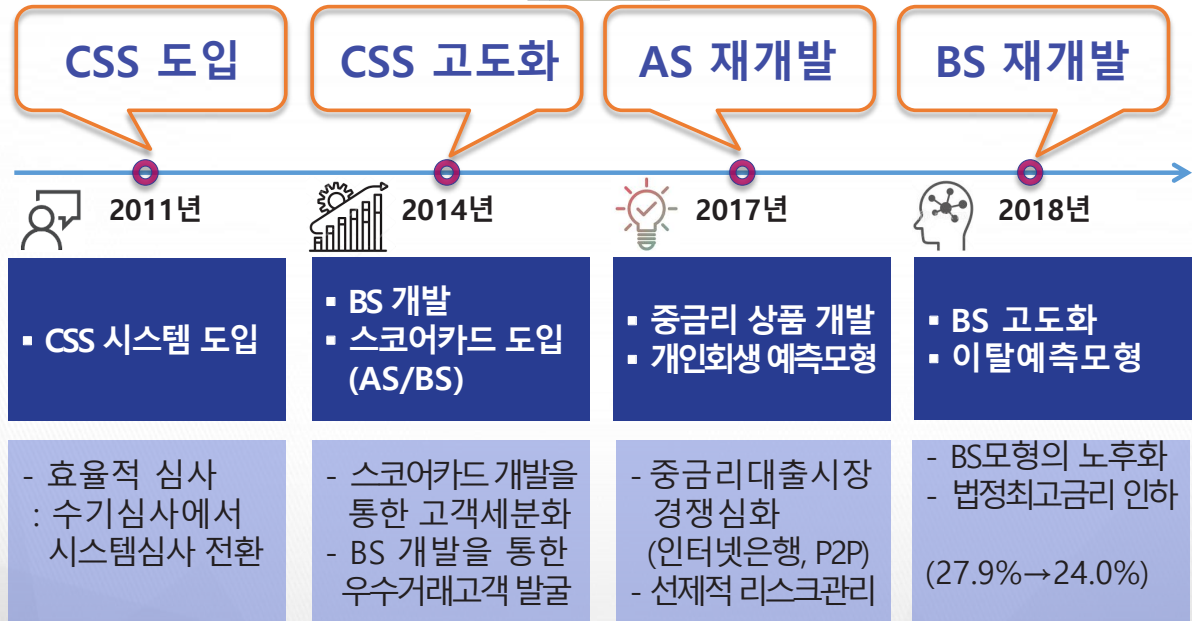
-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은 고객의 리스크를 **측정/평가/운영**하는 체계
- 신용평가모형, 전략,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괄하는 영역



5

4. CSS모형 고도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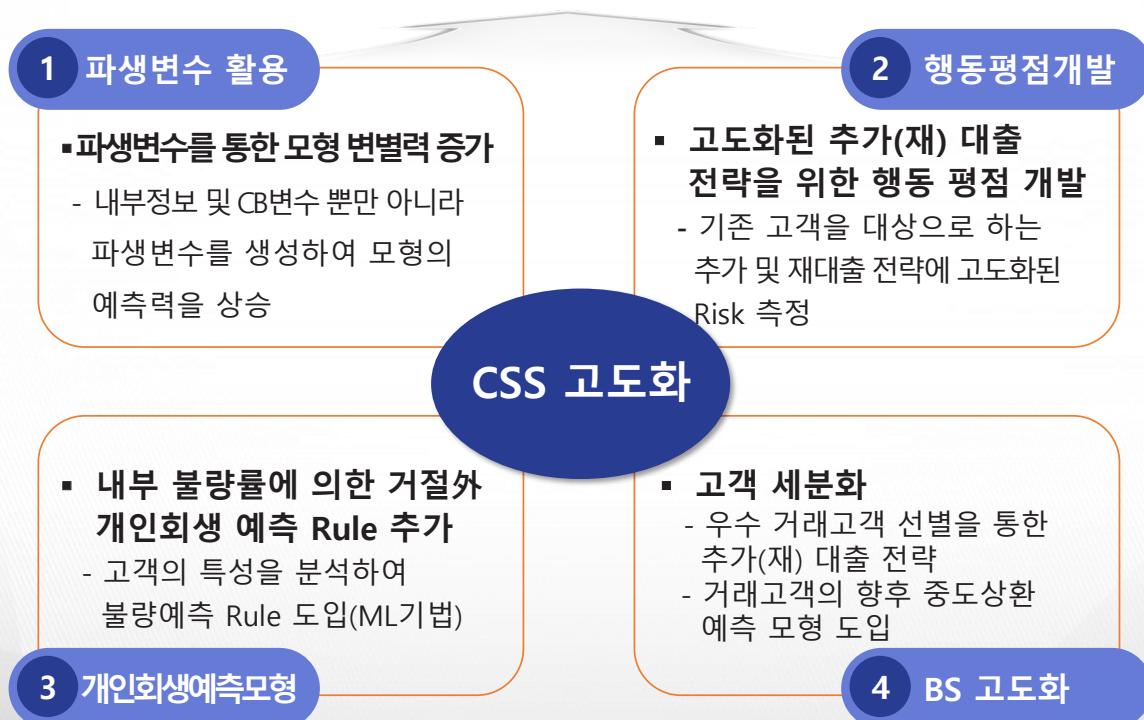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용대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향상”**



6

4. CSS모형 고도화 현황

“지속적인 CSS 고도화를 통한 Risk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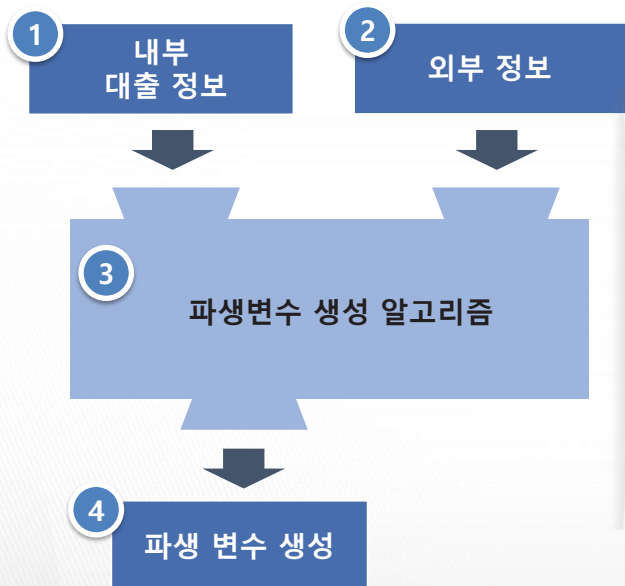


7

4. CSS모형 고도화 현황

■ 파생변수 생성

내·외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측력 높은 변수를 발굴하고 모형의 변별력을 증대



■ 파생변수를 통한 모형 변별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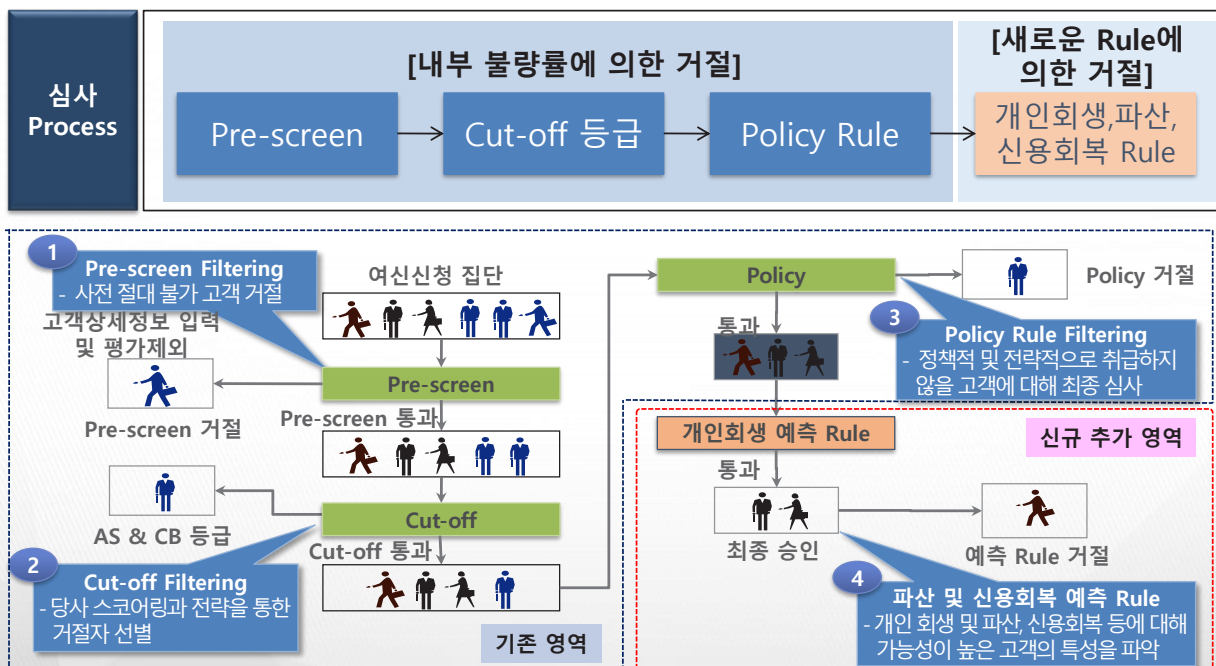
-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의 행동 패턴 및 최근 성향을 반영한 모형 개발을 통해 변동에 따른 대응력 및 모형의 변별력을 향상

8

4. CSS모형 고도화 현황

■ 개인회생 예측모형

대출 신청자 중 승인자를 선별하는 작업인 승인 전략 Process는 Pre-screen, Cut-off전략, Policy Rule 및 개인회생(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예측 Rule에 대하여 개발



9

4. CSS모형 고도화 현황



“고려저축은행만의 심사·운영 Know-How 보유”

10

5. 신용대출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규제환경	- 가계부채 총량규제 지속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에 따라 개인대출(주택담보, 신용) 시장 축소 - 예대출 규제('20년 110%, '21년 100%) -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변경(부과기간 5년→3년) - 대출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예시-가계대출) ▶ '20년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 정상 : 0.9% → 1.0% · 요주의 : 8.0% → 10.0%						
시장환경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95 1644 549 1765">금 리</td><td data-bbox="568 1644 1391 1765"> -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이자율 하락 전망 - 대출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강화로 대출금리 하락 전망 </td></tr> <tr> <td data-bbox="395 1787 549 1966">경 쟁</td><td data-bbox="568 1787 1391 1966"> - 저축은행 비대면 경쟁 본격화 (앱 출시 및 활성화), 대출비교 서비스 플랫폼 확보 경쟁 - 중금리 시장 경쟁심화: 예대출 규제시 고금리대출 패널티 적용 - 지방저축은행, 서울/수도권 우량대출 확보 경쟁 치열: 지방 경기 악화 </td></tr> <tr> <td data-bbox="395 1989 549 2065">고 객</td><td data-bbox="568 1989 1391 2065">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산정내역 제공의무 등 고객 알권리 강화 </td></tr> </table>	금 리	-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이자율 하락 전망 - 대출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강화로 대출금리 하락 전망	경 쟁	- 저축은행 비대면 경쟁 본격화 (앱 출시 및 활성화), 대출비교 서비스 플랫폼 확보 경쟁 - 중금리 시장 경쟁심화: 예대출 규제시 고금리대출 패널티 적용 - 지방저축은행, 서울/수도권 우량대출 확보 경쟁 치열: 지방 경기 악화	고 객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산정내역 제공의무 등 고객 알권리 강화
금 리	-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이자율 하락 전망 - 대출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강화로 대출금리 하락 전망						
경 쟁	- 저축은행 비대면 경쟁 본격화 (앱 출시 및 활성화), 대출비교 서비스 플랫폼 확보 경쟁 - 중금리 시장 경쟁심화: 예대출 규제시 고금리대출 패널티 적용 - 지방저축은행, 서울/수도권 우량대출 확보 경쟁 치열: 지방 경기 악화						
고 객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산정내역 제공의무 등 고객 알권리 강화						

1

5. 신용대출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고객특성에 맞는 맞춤형 CSS전략과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운영시스템 구축

“신용대출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수익성 확보”

우량고객 선별 및 마케팅 활성화

- ✓ CSS모형을 통해 거래 고객 중 향후 건실하게 납입할 가능성이 높은 우량고객을 선별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수익성 향상

법정 최고 금리인하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

- ✓ 법정 최고 금리인하(2018년 2월 : 최고금리 24%)와 향후 인하 예정(최고금리 20%)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승인한도·금리 전략 수립

부실채권의 최소화

- ✓ 불량 가능성이 높은 거래 고객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및 손실 최소화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 ✓ 전략운영시스템의 모형·전략 수정 및 등록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하므로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현업 중심의 전략운영 체제

- ✓ 현업담당자가 의견을 반영 CSS모형·전략을 빠르고 쉽게 신규 등록 및 적용이 가능

체계적인 모니터링

- ✓ 평점 및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